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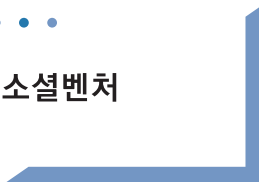


Vol.5 ('22)

사회적경제 정책포커스

...

웰컴, 소셜벤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CONTENTS

	들어가며 태평동에서	04
01.	웰컴, 소셜벤처	06
	기 고 소셜벤처의 등장과 의미	08
	기 고 대통령 경제사절단 최초의 소셜벤처, 그 후 어떻게 됐을까?	14
	기 고 소셜벤처, 현재와 미래	22
	좌담회 궤도에 오른 소셜벤처, 법제화 이후 과제는?	28
	기 고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성동구 정책 현황 및 성과, 향후 과제	44
02.	정책 정보	52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	54
03.	부록	56
	사회적경제 정책포커스 발간 목록	58

태평동에서

편집위원장 서종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책연구본부장

「사회적경제 정책포커스」 제5호를 발간합니다. 이번 호의 주제는 ‘웰컴, 소셜벤처’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을 소셜벤처기업으로 정의하는 법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셜벤처는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보증 및 투자,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활성화 정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화의 의미와 과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도현명은 ‘소셜벤처의 등장과 의미’를 통해, 사회적기업(고유명사)과 사회적 기업(보통명사)을 구분합니다.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대규모 사업이 필요한 사회적 기업이 출현했고, 정책 흐름의 영향(일자리 중심의 사회적 기업과 임팩트 펀드 공급 이후 활성화된 생태계 중심의 소셜벤처)이 맞물려 소셜벤처가 법제화되었다고 정리합니다. △본질은 여전히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있다는 점, △임팩트 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올바르게 측정하고 공표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태는 ‘대통령 경제사절단 최초의 소셜벤처,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에서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사절단에 포함되었던 소셜벤처의 사례를 통해 성장에 필요한 5가지 요소 △ESG 관점에서 대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임팩트 투자사와의 교류와 만남, △혁신적인 모델의 실행을 돕는 모험자본 등의 제공, △사회적 가치 측정과 공시 등을 통한 다중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임팩트 투자 펀드와 관련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나영은 ‘소셜벤처, 현재와 미래’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영리-비영리를 넘나들며 지분 투자와 융자, 지원금을 혼합금융의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혁신 전문 펀드, △투·융자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 출자자 및 운용사의 인센티브 설계, △좋은 인력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 △공공구매 인센티브 부여 등입니다.

‘궤도에 오른 소셜벤처, 법제화 이후 과제는?’라는 주제로 진행한 좌담회에서는 법제화 이후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와 기대는 무엇인지, 활성화에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금융지원과 사회적 가치 측정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김슬기는, 신보 대출 사례를 소개하면서, 소셜벤처의 특성을 고려한 대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때 측정된 사회적 가치 수치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비즈니스 외적인 활동을 담지 못하는 아쉬움도 토로하였습니다.

천자영도, 직면한 문제로 금융지원을 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모델이 활성화돼야 사회적 가치도 함께 커지는 구조를 감안하여, 사회적 가치의 창출과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의문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기에 사회적 가치 측정의 문턱을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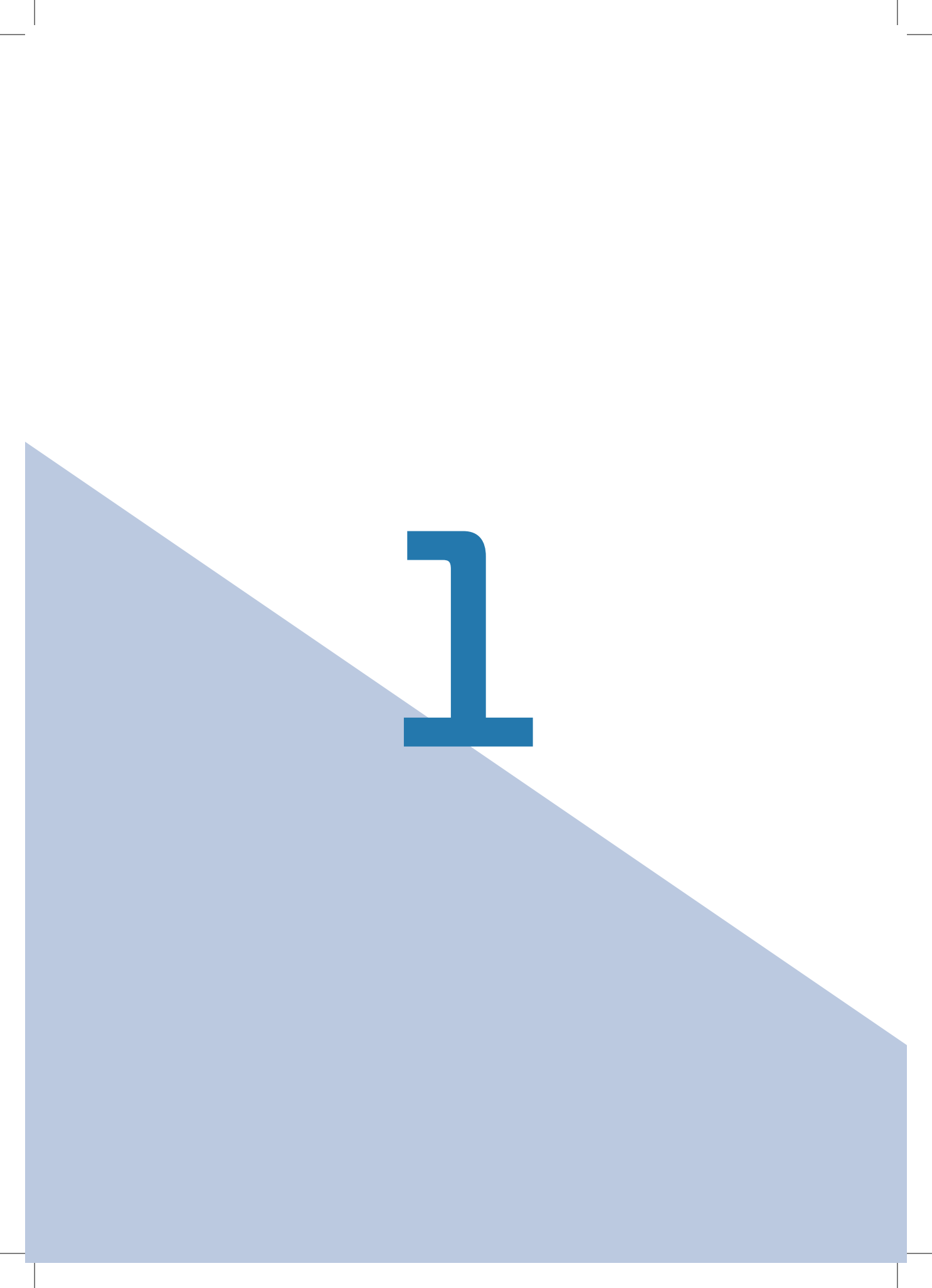
전일주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자본과 금융이 더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는지 판단하는 일이 중요하며, 임팩트 위상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회적 가치 공시 의무를 확대하고, 명확하고 판단하기 쉬운 사회적 가치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정부의 역할로 제안합니다.

임성훈은, 투자방법이 개선되기 위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임팩트 투자는 소셜벤처로서의 성장전략을 지원하는 임팩트 투자사에 정책 자원을 집중해야 하며, 투자는 아니더라도 원금과 이자는 갚을 수 있는 소셜벤처에게는 기보와 신보의 대출을 중심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장선은 좌담회와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성동구 정책 현황 및 성과, 향후 과제’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성동구 사례는, △도시재생 정책의 일환으로도 접근하였으며,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간접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 효과적이었다고 분석합니다. 향후 과제로,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적 동반자 구조를 구축하고, △기초지방정부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최고의 주민참여 창구이자 테스트베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도구(도현명)이므로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고 알리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소셜벤처를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구분되는 새로운 유형이 아니라, 집중과 투자를 동력으로 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론(전일주)으로 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민간과 정부가 같이 노력해 각 분야에서 자신만의 특화된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임팩트 챔피언(김나영)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정책포커스는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합니다. 사회적경제 정책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실을 정책연구본부로 개편한 것과 같은 길입니다. 2019년 1호부터 지금의 5호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입각한 정책의 조사·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매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seojs@ikosea.or.kr).

A large, bold, blue number '1' is centered on a light blue background. The background is a solid light blue color. The number '1' is a simple, stylized font with a horizontal base and a vertical stem that has a small hook at the top. The number is positioned in the upper right quadrant of the image.

1



웰컴, 소셜벤처



소셜벤처의 등장과 의미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소셜벤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생태계에서는 이 근거 마련에 대해 소셜벤처도 기존의 다른 인증체계처럼 돼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기존에 다소 소외됐던 소셜벤처의 지원기반이 튼튼해지는 중요한 변화라는 입장이 많았다. 아무래도 국내는 아직까지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이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법적 근거 마련이라 함은 거꾸로 그간 소셜벤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정부의 관점 외에 생태계 내 소셜벤처 개념에 대한 혼란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물론 소셜벤처가 무엇인지에 대해 지역/사회/시대마다 다르게 정의될 수 있고, 법적인 접근 외에는 그렇게 명료해야 하는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소셜벤처 개념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과 동시에 사용되는 의도와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이 개념이 등장하게 된 과정이나 까닭을 이해해볼 가치가 있다.

벤처의 연원을 따지자면 대항해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현대적 의미의 벤처는 대체로 벤처캐피탈이라는 전문 투자자와의 연결성 안에서 정의된다. 제2차 세계대전의 불확실성 속에서 이 활동은 미국을 중심으로 시도되기 시작했다고 하며 1960~70년대에 비로소 현재와 유사한 구조의 벤처와 벤처캐피탈이 자리 잡았다. 이들의 핵심적 속성은 큰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한 도전과 그에 대한 투자다. 이후 법이 생기고 좀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인지 학습되며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도 이와 유사한 시기인 1970년대에 영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종류의 조직이 대안적으로 탄생하는 것을 명명하며 사용되기 시작했다. 기존 기업이 가진 속성과 다르게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그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미션을 가지며 활동한다는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새롭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룹으로 묶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도 특히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 활동하던 개인이나 비영리조직에 의해 지속가능한 고용이나 훈련을 위한 사업체들이 발족됐으며, 이들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듯 새로운 개념은 늘 당시에 새롭게 나타난 현상을 기존의 것들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에서 소셜벤처는 언제쯤 왜 나타났을까? 여러 해석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논의가 주를 이룬다. 하나는 사회적 기업의 창업기업을 의미한다는 표현이다. 사회적 기업의 영문 표현은 소셜엔터프라이즈다. 여기서 엔터프라이즈는 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체를 의미하는데 막 시작한 초기창업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업을 지칭할 필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들을 모아서 지원하고 더 많이 생기도록 촉진하기 위한 필요는 소셜벤처라는 구분된 개념을 만들었다. 다른 하나는 벤처의 연원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좀 더 위험하고 도전적인 과업을 불확실성 속에서 수행하며, 이를 통해 훨씬 더 규모 있는 사업을 만들려는 특성을 규정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실제로 사회적 기업의 본질이 반드시 대규모 조직일 필요는 없다. 특정 지역에서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소수의 인원에게 좋은 가치를 제공하더라도 괜찮은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컨퍼런스에서는 종종 어떻게 우리의 사업을 모델로 만들어 다른 조직에서 복제하고 확산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등장한다. 궁극적인 목적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다 보니 우리 조직이 커지는 것보다 각 지역의 성격과 상황에 맞게 모델이 도입되는 경우를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회문제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거나, 규모가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시장의 규범이나 작동 매커니즘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 그림 1. GSVC South East Asia 2018 포스터 |



경우에는 혁신적인 도전을 통한 대규모 사업이 요구된다. 그래서 벤처라는 성격이 강한 사회적 기업, 즉 소셜벤처가 필요해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소셜벤처 개념을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한 하나의 대회가 있다. 1999년 UC버클리 경영전문 대학원인 하스스쿨이 주도해서 만든 글로벌소셜벤처컴퍼티션(GSVC, Global Social Venture Competition)인데 전 세계의 대학 또는 단체와 협업으로 운영됐다.¹⁾ 말 그대로 소셜벤처 대회가 운영되면서 스스로를 소셜벤처로 정의하는 조직의 참여와 인식 확산에 기여했다. 해당 대회의 심사 기준을 보면 앞서 언급한 초기단계의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식과 함께 규모화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세계적으로 소셜엔터프라이즈와 소셜벤처를 완전히 구분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다. 정부의 법적인 지원이나 접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자원에 맡겨진 상태로 그때그때의 맥락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되고 해석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임팩트 스타트업과 같이 또 다시 분화되거나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용어들도 생기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혼용에는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표 소셜벤처로, 앞서 언급한 글로벌소셜벤처컴퍼티션에서 수상하기도 했던 레볼루션푸드(Revolution Foods)를 살펴보자. 전직 선생님이었던 두 창업자가 공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과 건강한 식사 제공을 위해 만든 소셜벤처다. 이 소셜벤처는 초기부터 수차례 임팩트 투자를 받으며 성장했다. 어떻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한 식사를 제공할지, 어떻게 아이들이 건강한 식사에 친근하게 만들지 두 가지 문제를 풀어내며 2006년 설립된 이래 4억7천만 식사를 23개주 564개 도시에서 제공했다.

| 그림 2. 레볼루션푸드 |



출처 : 레볼루션푸드 홈페이지(<https://www.revolutionfoods.com/kids/>)

1) 해당 대회는 수년간 20년의 역사를 끝으로 폐지됐음

반면 국내에는 2007년 사회적 기업에 인증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일반 개념과 구분되는 하나의 고유명사가 됐을 정도로 명료한 제도적 정의가 있다. 이 시기 이전에는 국내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가 통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관련 초기 번역서인 「세상을 바꾸는 대안기업가 80인」에 사회적 기업이 아닌 대안기업으로 표현돼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미 세계적으로 소셜엔터프라이즈와 소셜벤처가 혼용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국내에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6년에 '한국소셜벤처대회'가 처음 열리기도 했다. 처음 생길 때는 해외 트렌드와 마찬가지로 혼용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 및 확산이 시작되면서 소셜벤처 개념은 대회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몇 년이 지나가게 된다.

그러나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소셜벤처라는 용어는 지속적으로 생태계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는 앞서 소셜벤처가 분화된 해외 이유와 마찬가지로 초기단계라는 점과 벤처라는 위험 감수의 속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더해 기존의 인증 사회적기업의 초기 정책이 취약 계층 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정부의 일자리 지원에 따른 안정성을 기반으로 확산됐다면, 그보다 좀 더 기술을 활용해 일자리 외의 문제에도 다양하게 접근하길 원하던 청년들은 기존의 강력한 기조와 다른 스스로의 위치를 인식하고 싶었던 것이다. 한편 인증제도에 대한 반발심도 한 몫 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다. 국내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조직은 스스로를 사회적기업으로 부를 수 없다. 물론 사회적 기업이라는 일반 명사로 사용하면 된다지만 대내외적으로 보다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소셜벤처 또는 임팩트 스타트업이 선택된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던 중 2017년 겨울에 '서울숲 소셜벤처 클러스터'라는 성수동의 민간 소셜벤처들이 모여 만든 지역에 대통령이 방문해 소셜벤처를 지원하고 임팩트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된다. 그렇게 2018년 5월, 소셜벤처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지원이 처음 시작됐다. 이때도 역시 소셜벤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무부처로 설정돼 기존의 벤처를 진흥 하던 시스템에 소셜벤처라는 특수한 유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원은 하나둘 늘어났다. 특히 괄목할 만한 변화는 임팩트 펀드, 즉 사회적 가치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정책적 지원으로 빠르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투자는 당연히 향후 성장성을 기본으로 검토되는 것인데, 이는 위험을 감수하고 성장하려는 소셜벤처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배후 생태계다. 실제로 약 3년반 동안 7,000억원이 넘는 임팩트 투자가 공급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소셜벤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소셜벤처는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지닌 기업가가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소셜벤처 요청에 따라 인증제도가 아닌 판별기준을 마련해 해당 기준에 적합한 조직은 모두 소셜벤처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핵심 기준은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장에서는 이런 판별기준이나 법적 근거 등이 또 다시 소셜벤처를 정책의 틀에 한정시켜 민간의 자유로운 성장과 확산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만, 대체로 정책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렇듯 국내에서 소셜벤처는 앞서 언급한 역사적이고 자연스러운 이유 외에도 정책적인 흐름이 미친 영향이 많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소셜벤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진행된 특성이 있다. 또한 초기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에 문제의식을 가진 활동가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시작된 반면, 소셜벤처는 해외 사례와 대화를 통해 이를 이해하게 된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그 시작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전자는 영국이나 유럽의 사회적경제가 주요한 벤치마크였고, 후자는 미국의 소셜벤처가 중요한 학습 사례가 됐다. 이런 차이는 한국만의 독특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임팩트 펀드가 대규모로 공급되면서 이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 조직들이 다수 소셜벤처 그룹에 소속돼 있어 많은 혜택을 봤으며, 임팩트 펀드 운용사들도 대다수가 소셜벤처 그룹에 있는 생태계 조직들로부터 나오며 생태계의 특성이 기존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와 좀 더 구분되는 경향이 생겼다.

소셜벤처의 등장과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은 물론 하나의 현상이지만 그것이 함의하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다시 한번 되짚어야 하는 점은 본질을 다시 사회적 기업이 정신에 뒤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좋은 창업은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창업가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작된다. 일반 창업인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등이 그러한 각자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도 마찬가지다. 단지 스스로의 호구지책으로 만들어지는 조직이 아니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에 가장 적합한 도구로 기업을 창업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레볼루션푸드나 키바 같은 전설적인 소셜벤처가 모두 그랬다. 우리는 개념의 끝부분이 갈라지는 특화에 집중하기 이전에 다시 본질은 사회적 기업이 정신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소셜벤처 생태계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임팩트 워싱에 대한 고민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임팩트 투자자 네트워크인 글로벌 임팩트인베스팅 네트워크(GIIN, 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조사에 따르면 5년 이내 도래할 가장 큰 문제는 늘 임팩트 워싱이다. 돈이 들어오고 성장이 빨라지면서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나니 점점 더 가짜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은 국내나 해외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개별 조직 단위는 물론이고 생태계 전체 차원에서도 사회적 기업 또는 소셜벤처의 정체성은 크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 임팩트 워싱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사회적 가치를 올바르게 측정하고 공표할 수 있는 문화가 사회에 자리 잡는 것이다. 그래도 사회적기업은 인증이라는 제도를 통한 검증 과정이 있다. 하지만 소셜벤처는 판별제도의 어쩔 수 없는 허점을 노린 임팩트 워싱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보다 건강한 소셜벤처 생태계를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노력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필자에게는 여전히 “사회적 기업이에요? 소셜벤처예요?”라는 질문이 어색하다. 그러한 구분이 정책적 목적 외에는 도대체 왜 필요한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핵심은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가 소셜벤처라는 구분을 원했다는 흐름만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언젠가 필요성을 잃는다면 잊히고 통합되는 것이 맞다. 소셜벤처건 사회적 기업이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 자체가 절대적인 선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정의와 개념은 사후적으로 이해와 적용을 위한 노력일 뿐이다. 늘 개념은 사회의 필요에 따라 생기고 없어지며 진화해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두 가지 조직이 모두 필요하고, 또 완전히 다른 어떤 조직의 필요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그간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건 소셜벤처건 모든 생태계는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장점도 많았지만 개념 정의의 측면에서는 잃은 것도 많다. 사회적경제와 소셜벤처 생태계가 충분히 성장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본의에 집중하는 한편, 그 개념이 어디로 진화해나갈 것인지는 이제 생태계가 스스로 정의하고 만들어 가도록 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기고

대통령 경제사절단 최초의 소셜벤처, 그 후 어떻게 됐을까?

소셜벤처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우리가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

김정태 사회혁신 컨설팅·임팩트투자 MYSC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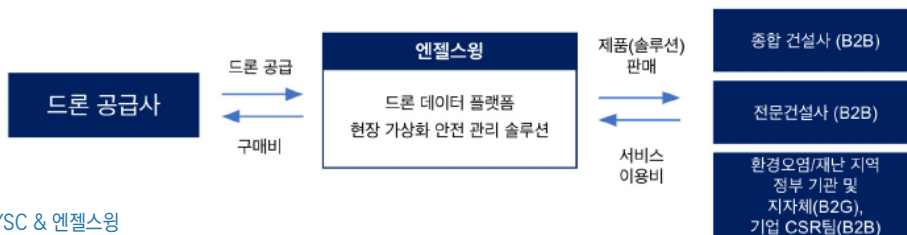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사절단에 처음으로 소셜벤처가 포함됐다. 북유럽 국가 중 소셜벤처 분야가 가장 발전했다는 스웨덴에서 먼저 한국 정부에 ‘소셜벤처’와의 교류를 요청했고 이를 한국 정부에서도 흔쾌히 수용했기 때문이다. 엔젤스윙, 닛, 모어댄, 테스트웍스, 유니크굿컴퍼니, 오파테크 등 한국을 대표하며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한 6개의 소셜벤처는 2년반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

당시 필자 역시 임팩트투자사 대표로 경제사절단에 함께 동행했었다. 2011년에 설립된 엠와이소셜컴퍼니(MYSC)는 지금까지 68개 기업에 임팩트 투자를 했다. 여기에는 흥미롭게도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기업 중 4개 기업(엔젤스윙, 모어댄, 테스트웍스, 유니크굿컴퍼니)도 포함된다. 투자사로서 보다 가깝게 지켜본 이들 4개 소셜벤처 사례를 통해 소셜벤처의 성장과 발전은 어떤 경로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우리가 다른 소셜벤처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인사이트를 추출해보고자 한다.

엔젤스윙 : 아시아 No.1 리얼리티캡처 회사로 성장

엔젤스윙(대표 박원녕)은 2015년 네팔 대지진의 긴급구호에 참여한 드론 대학생 동아리를 통해 시작됐다. “기술로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미션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건설 현장 드론테크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처음부터 그러한 비즈니스모델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네팔 대지진 현장에서 활약한 경험을 통한 최초 접근 중 하나는 개발도상국의 긴급구호 및 재난복구 현장에서의 적용이었다. KOICA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등을 통해 엔젤스윙은 드론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기반 비즈니스모델을 지속적으로 탐색해왔다.

| 그림 1. 엔젤스윙의 비즈니스모델 구조도 |



출처 : MYSC & 엔젤스윙

필자가 엔젤스윙을 처음 만난 곳은 서울대학교 교내에서 진행된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였다. 당시 ‘소외된 90%를 위한 기술’의 관점에서 진행된 콘테스트에서 엔젤스윙은 단연 두각을 나타낸 팀이었다. 유효한 시장과 고객 개발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드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차별적인 가치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소통할 줄 아는 팀이었다. 특히 이를 시작한 박원녕 대표는 추구하고자 하는 소셜임팩트와 기업가정신 모두 명확한 사람이었다. 드론의 가치 제안은 명확했지만 누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엔젤스윙은 산업계와의 접점에서 드디어 1차 유효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바로 건설업계였다. 건설업은 ‘전통 산업’으로서 현장 의존적, 노동집약적, 정보 분절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로 인해 제조업의 생산성은 지난 20년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건설업의 생산성 증가량은 1%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장에 엔젤스윙의 드론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엔젤스윙은 드론 매핑 기술을 기반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측량해 현장 가상화 안전 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건설 재료량을 측정하고, 최적의 자원 투입과 작업 계획을 통해 기존 방식 대비 투입 자원이 약 80% 이상 감소하는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과거 건설사가 직접 드론팀을 운영했던 적이 있지만 투입 대비 효과가 높지 않아 다수는 직접 운용을 포기했다.

네팔 대지진에서의 긴급구호 활동 이미지가 강했던 엔젤스윙의 진면목을 다시금 경험한 것은 지난 2020년 여름이었다. 당시 SK에너지와 함께 ‘사회적 가치 기반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해당 모델링의 파트너도 함께 물색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워크숍’을 준비하던 때였다. 어떤 소셜벤처가 SK에너지와 협력해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함께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엔젤스윙이 떠올랐고, 그렇게 엔젤스윙은 ‘드론 데이터 플랫폼’이 어떻게 사회적 가치 플랫폼이 될 수 있는지를 워크숍에서 자세히 소개해줬다. 이후 엔젤스윙은 건설업계 최상위권 기업들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필자가 활동하는 엠와이소셜컴퍼니 역시 공동투자를 진행했다. 엔젤스윙의 누적투자액은 현재 19.5억원이고, 고용인원 21명, 매출액은 7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엔젤스윙은 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개발도상국의 기후재난 복구, 그리고 디지털트윈과 같이 리얼리티캡쳐 시장으로의 확장도 진행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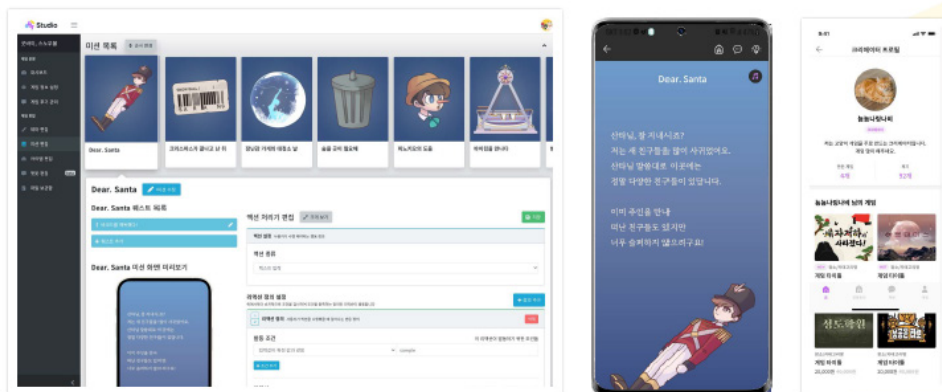
유니크닷컴퍼니: 국내 최고의 몰입형 체험게임 플랫폼으로 성장

유니크닷컴퍼니는 2017년 설립된 소셜벤처다. ‘방 탈출’과 같은 소규모 오프라인 기반 게임이 인기를 얻을 무렵, 좁은 현장에서의 제한된 놀이 경험이 아닌 다양한 기술(VR/AR/메타버스 등) 기반의 현실 게임을 구현해내는 방향으로 도전을 시작했다. “세상은 거대한 놀이터이고 우리 모두는 플레이어다!”라는 브랜드 구호를 보면 유니크닷컴퍼니를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 사실상 모든 장소에 가상의 스토리를 입히고, 참가자들은 앱 기반의 VR/AR을 활용해 물리적 현장과 공간과 상호작용하며 몰입형 게임에 참여하게 된다.

| 그림 2. 유니크닷컴퍼니의 ‘리얼월드 스튜디오’ |

Realworld Studio 크리에이터용 인터랙티브 실감경험 저작도구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듯 손쉽게 누구나 미션 기반의 체험 게임을 제작하고 채널에 공개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



경도, 압력, AR, GPS, 전화, 사진촬영인증 등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설정할 수 있다

제작내용을 앱으로 즉시 확인

크리에이터 채널에 공개하여 자신의 활동/수익화 지원

출처 : MYSC & 유니크닷컴퍼니

MYSC는 2019년 유니크닷컴퍼니에 씨드 투자를 진행했다. 그런데 투자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 중 하나는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 작은 사무실로 입주한 유니크닷컴퍼니와 짧은 기간 동안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친 계기가 있었다. 빈번하게 안부를 묻다가 티타임을 가지며 유니크닷컴퍼니가 이루려는 미션이 무엇인지 진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이렇듯 ‘투자 접근성’은 투자자와 투자기업 간의 빈번한 만남을 촉진하고 지원하면서 강화될 수 있고,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투자 유치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 그런 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진행하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지역 소셜벤처의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좋은 정책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유니크굿컴퍼니가 최초 제안한 ‘리얼월드’는 2018년 당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었다. 지금과 같이 ‘메타버스’ 열풍이 불기도 전이었다. 게다가 당시 유니크굿컴퍼니가 새롭게 추가한 신규 사업 아이템은 청각장애인도 TED 영상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돕는 영상 자막 솔루션이었는데, 이것으로 지속가능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였다. 전기가 마련된 것은 하나금융그룹이 2018년 새롭게 시작한 ‘하나파워온체인지’ 혁신기업 성장지원사업이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도전하라”라는 모토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한 팀 당 5천만원을 인건비 등 용도 제한 없이 지원해줬다. 이때 선발된 5개 팀에는 장애인 수동 휠체어에 ‘전동 모터’를 부착해 모빌리티를 강화하는 토도웍스 등이 포함됐다. 선발 과정에서 내외부 심사위원들이 가장 많이 고민했던 팀은 유니크굿컴퍼니였다. 제안하는 내용의 실체가 아직은 부족했고, ‘몰입형 게임 플랫폼’이 과연 사용자들이 감동할 만한 경험인지 발표하는 공동대표들 외에는 확신을 가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선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때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이런 관점을 공유했다. “우리가 지원하려는 소셜벤처는 무난하게 입증된 것을 더 잘해내는 기업이 아니라, 정말 실패할 수 있지만 전에 없는 개념을 검증하는 팀이 하나쯤은 포함돼야 하지 않을까요?” 즉, 실패할 확률이 가장 높은 팀도 하나는 포함돼야 명실상부 ‘혁신기업 성장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이었다. 이에 힘입어 유니크굿컴퍼니는 설립 이래 처음으로 5천만원의 적지 않은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리얼월드’ 개념을 빠르게 가설검증해 2019년에는 스웨덴 경제사절단으로 선발될 만큼 성장을 지속해왔다. MYSC로부터 시드투자를 받은 이후 2020년에는 더웰스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12억원의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 현재 유니크굿컴퍼니의 ‘리얼월드’에는 크리에이터들이 자발적으로 개발하고 오픈한 ‘인터랙티브 실감 경험 게임’이 2천개를 넘어섰다. 현재 유니크굿컴퍼니는 해당 분야 최고의 기업으로 인정받으며 수십억 규모의 후속 투자가 빠르게 논의되고 있다.

컨티뉴(모어댄): 국내 최고의 업사이클링 브랜드로 성장

모어댄은 ‘컨티뉴’라는 법인의 브랜드이지만, 브랜드명으로 더 알려져 있다. 올해 모어댄은 국내 자동차 브랜드 현대차와 기아차를 넘어, 벤틀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폐 천연 가죽 시트를 활용해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출시했다. 시트 외에도 자동차에서 나오는 안전 벨트, 에어백과 타이어까지도 모어댄의 주 재료다. 이렇게 만들어진 업사이클링 제품이 소소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앞서 해외 유명 브랜드와 콜라보한 제품은 가격이 수백만 원에 달하지만 출시 직후 매진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BTS의 RM,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이 사용하면서 더욱 유명해진 모어댄의 최초 모습은 지금과는 매우 달랐다. 컨티뉴는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창출까지 포함해 자동차 시트 가죽에서 나오는 연간 400만톤의 ‘고급’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목적으로 2016년 설립됐다. 법인 설립 전후, 다양한 창업경진대회와 육성사업 심사를 통해 만났던 컨티뉴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심사위원들의 단골 질문은 이러했다. “사람들이 깔고 앉았던 헤진 가죽으로 만든 가방을 누가 고가에 사겠어요?”, “업사이클링 산업은 절대 스케일업이 안 돼요. 비용이 일단 투자 대비 너무 높고, 아주 소수의 가치소비자에게만 어필할 수 있는 시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투자업계나 산업계에서 매우 찾기 어렵지만 컨티뉴는 비즈니스모델의 검증 외에도 사회적인 고정관념이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했다.

| 그림 3. 컨티뉴의 업사이클링 과정 |



출처 : 컨티뉴 홈페이지

꾸준한 작업과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온 컨티뉴는 2020년부터 국내에 빠르게 확산된 ESG 흐름과 함께 그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ESG 흐름에 대비한 갑작스런 모델이 아니라, ESG가 부각되기 전부터 준비해온 노력의 결실이 시대 흐름과 만난 것이다. 2020년 10월, 컨티뉴는 18개월의 연구 및 공사 끝에 자체 '생태공장'을 완공했다. 태양광을 통한 재생에너지 자급과 하이브리드 물 재생 시스템을 통해 기존의 소재에만 국한됐던 업사이클링을 공정에까지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은 물론, 빗물을 모아 세척용수로 활용하는 물 발자국 제로에도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에는 초기 중점을 뒀던 북한이탈주민 외에 현재는 경력보유여성, 시니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100개의 NGO와 커뮤니티 후원을 목표로 하는 수익의 사회 환원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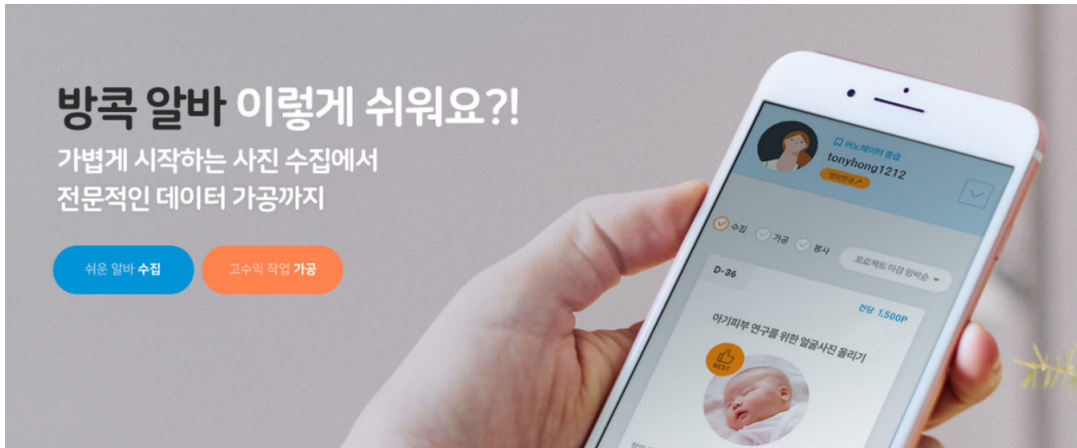
컨티뉴는 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 운용사인 더웰스인베스트먼트와 필자가 있는 MYSC로부터 2019년 약 20억원 규모의 임팩트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 유치에는 컨티뉴가 2016년 설립 이후 꾸준히 지속해온 업사이클링 시도가 시장이 확대되면서 유사한 모델이 등장하는데 기여한 점, 다양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동차 브랜드의 ESG 경영을 돕는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현재 컨티뉴는 5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 라운드를 시작하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 최고의 업사이클링 브랜드가 되는 비전을 실현해가고 있다.

테스트웍스 : 시리즈B 투자까지 마무리한 소수의 인증 사회적기업

테스트웍스는 인공지능 데이터 수집·가공 및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기업이자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서 시리즈B(누적 60억) 투자를 유치한 몇 안 되는 스타트업이다. 데이터 수집·가공은 인공지능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비례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필수 단계로,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필요에 맞게 정확하게 가공하는지가 핵심이다. 이러한 AI학습용 데이터 가공업체는 약 8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중 인증 사회적기업은 테스트웍스가 유일하다.

창업자인 윤석원 대표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의 베테랑 IT 전문가다. 2015년 처음 회사를 창업할 때부터 일반 창업가와 달리 윤석원 대표는 회사의 정체성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회사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예전 동료들과 지인들이 사회적기업의 비전을 공유 받고서 투자 의향을 철회하거나 경영진으로의 합류가 불발되는 것을 적지 않게 경험하기도 했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배당 제한에 대한 부분을 주주로서 이익 제한으로 오해하거나, 사회적기업에 투자 후 회수된 사례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투자가 아닌 기부 대상으로서의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 그림 4. 테스트웍스가 운영하는 데이터 가공 클라우드소싱 플랫폼 aiworks |



출처 : 테스트웍스

필자가 테스트웍스를 알게 된 것은 2015년 설립 직후였다. 워낙 드문 기술 기반 사회적기업이였기에 테스트웍스가 실현하고자 하는 미션은 분명했지만 어떻게 경쟁력을 갖춰 가야 할지 다양한 고민을 하는 단계였다. 기회는 2016년,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회사 중 하나인 SAP의 한국법인에서 새로운 방식의 사회공헌을 해보고 싶다는 연락에서 비롯됐다. MYSC는 SAP의 강점과 연계성을 고려한 대표 사회공헌 모델을 리서치하던 중 SAP가 이미 2011년 Autism@Work라는 이니셔티브를 시작해 2020년까지 전 직원의 1%를 자폐성장애편(아스퍼거증후군)으로 채용하는 목표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당시 발달장애 관련 소셜벤처 동구발 등을 통해 성년이 되는 발달장애인이 진출 가능한 직무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무 외에도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함양과 사내 코칭 등 다각적인 접근, 즉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MYSC는 SAP에게 <SAP 고기능성 자폐인 고용모델 개발>을 제안했다. 그리고 신속하게 해당 모델링이 가능한 파트너 기관으로서 테스트웍스의 윤석원 대표에게 한국에서 최초인 고기능성 자폐인(아스퍼거 증후군)의 IT테스팅에 관한 직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싶었고, 이미 해외에서는 성공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원 대표는 흔쾌히 사업 참여에 동의했다. 그렇게 3명의 고기능성 자폐인이 참여해 IT테스팅 교육과 사회성 강화 등을 위한 집합적 임팩트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그 결과, 모두 3개월만에 국제 공인 IT테스팅 자격증을 취득했고, 테스트웍스에 입사해 이 중 2명은 2021년 현재까지 장기근속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현재 테스트웍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은 20명에 달하고 있다. 비장애인보다 더 몰입해서 꼼꼼하게 수행하는 작업에 고객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데이터 가공 업무를 통해 ESG 가치를 실현하고 싶어 하는 대기업 고객군은 꾸준히 늘어나게 됐다. 테스트웍스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가 필요한 단계로 성장했다. 필자가 투자 자문을 진행했지만 당시 MYSC는 투자 재원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기업에 관심이 있을 임팩트 투자사에 소개를 진행해 결국 2018년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의 10억 원 규모 임팩트 투자로 이어졌다. 그리고 2020년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의 추가 투자와 함께 SK, 산업은행, MYSC가 신규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테스트웍스는 누적 60억의 시리즈B 투자까지 마무리하게 됐다.

소셜벤처 성장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앞서 엔젤스윙, 유니크굿컴퍼니, 컨티뉴, 테스트웍스 사례를 통해 소셜벤처의 성장을 돕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요소를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 ESG 관점에서 소셜벤처와 협업하길 원하는 대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¹⁾ 적극 지원
- 소셜벤처와 임팩트투자사와의 빈번한 교류와 만남의 장 지원
- 혁신적인 모델을 적극 실행하도록 돕는 모험자본/모험그랜트 등의 제공
- 창출하는 사회환경적 가치 측정과 리포팅을 통한 다중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지원
- 임팩트 투자 등 소셜벤처와 인증 사회적기업에 주목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확대 및 관련 인센티브 확대 등

2019년 6월, 스웨덴 경제사절단 이후의 변화는 사실 앞선 소셜벤처만의 성장은 아니었다. 생태계는 더욱 확장되며 꾸준히 인재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고, 소셜벤처 매출을 비롯해 시리즈A, 시리즈B 단계의 투자 소식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필자가 대표로 있는 MYSC도 그러한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2021년 12월, 모태펀드/고용노동부 계정의 사회적기업 펀드(60억)를 결성해 내년부터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주목적 투자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고, 최근에는 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250억)의 공동운용사로 선정돼 내년에 더 큰 단위의 임팩트 투자도 준비 중에 있다. MYSC의 운용자산(AUM)은 2022년 상반기가 되면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MYSC가 500억 원 이상의 투자자산을 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태계에 매력적인 소셜벤처 수가 과거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셜벤처에게, 그리고 임팩트투자사에게 2022년은 더욱 기대되는 한 해이기도 하다.

1)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한편 내부 자원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소셜벤처, 현재와 미래

김나영 크레비스파트너스 상무이사

2021년 7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시행에 따라 소셜벤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법 제2조(정의)에 단 한줄(“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로 표현됐지만 법 안에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존재를 인정한 점은 시사하고 있는 바가 매우 크다. 그동안의 사회적 논의가 “무엇이 소셜벤처인가?”, “왜 달리 구분해야 하는가?”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주체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가?”로 논의의 주제가 본격적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비주류였던 ‘소셜벤처’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돌아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주류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소셜벤처를 둘러싼 많은 주체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지원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볼 시기가.

소셜벤처의 등장

사회는 항상 변화한다.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그에 걸맞은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발전하고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며, 진화해간다. 지금은 모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벤처기업¹⁾’ 역시 venture(벤처)와 企業(기업)의 합성어로,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기술집약적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정형화된 기업 유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²⁾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펴왔다. 2000년대 들어 한국 사회는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비영리 법인·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로서 유럽의 사회적기업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에 따라 2007년 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며,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1) 벤처확인종합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institution/ventureGuide>)

2) 벤처기업의 특징

- 고위험과 고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진취적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에 도전하는 모험적인 기업
- 위험성이 높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얻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하이테크 기반 기업(HTBF: High Technology Based Firm)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게 됐다.³⁾ 이러한 특정 유형의 기업들을 위한 법이 제정돼 육성되는 가운데 소셜벤처는 민간에서 기존의 벤처기업과 사회적기업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민간에 등장한 개념이었다. 당시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고용 이슈를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기업 위주였다면, 소셜벤처는 일자리 문제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집중하며, 이를 벤처기업의 방식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주체였다. 새로운 주체의 등장은 시장에서 “이들은 무엇이며, 왜 구분해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낳았다. 소셜벤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했으나, 기존 시장 관점에서는 벤처기업으로 보기에 수익성과 성장성이 부족해 보였으며, 사회적기업 관점으로 보기에 일자리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않아 사회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시각은 단순히 비판에서 그치지 않고 때로는 소셜벤처가 정부나 민간의 여러 지원사업에서 상대적인 평가 열위를 받으며 소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하려는 기업가들이 존재했고, 소셜벤처를 지지하며 육성하는 다양한 정부/민간 기관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소셜벤처가 단순히 일부 조직이 사용하는 단어에서 그치지 않고 임팩트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중요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며 2010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해가기 시작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소셜벤처 경연대회’, 현대자동차그룹의 ‘H-온드림’, SK행복나눔재단의 ‘세상 사회적기업 콘테스트’와 ‘사회성과인센티브’, LG전자/LG화학의 ‘소셜캠퍼스’ 등 정부/민간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육성된 소셜벤처기업에 민간의 임팩트 투자자들이 투자하면서 소셜벤처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시장에 활발히 등장하게 됐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5월,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소셜벤처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소셜벤처의 판별기준과 가치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공개해 정부, 지자체, 대기업, 투자사, 엑셀러레이터 등 다양한 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2021년 7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시행에 따라 소셜벤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판별제 방식을 통해 기준에 부합하는 소셜벤처를 가려내어 지원·육성하겠다는 것이 근간이다.

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concept.do?m_cd=E001)

소셜벤처의 현황

소셜벤처의 현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전체적인 특징을 파악해볼 수 있다. 2020년 결과를 보면 판별기준에 따른 소셜벤처 대상 1,509개사 중 1,147개사가 해당 조사에 응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들을 보인다.

| 표 1. 소셜벤처 실태조사(주요사항 요약) |

- 업 력 : 평균업력 6.2년(7년 이상 33.6%, 3년 이상 ~ 7년 미만 36.4%, 3년 미만 30.0%)
- 지역분포 : 수도권 57.0%, 영남권 16.7%, 충청권 11.2%, 호남권 10.2%, 강원/제주 4.9%
- 업 종 : 제조업(45.0%), 정보통신업(21.4%), 과학·기술서비스업(8.2%), 도·소매업(7.1%) 등
- 재무현황 : 평균자산 22.6억원, 평균부채 13.4억원, 평균자본 9.2억원, 평균매출 22.6억원, 평균영업이익 -1.1억원

○ 기업 성장단계

구 분	아이디어 기획 및 개발 단계	제품/서비스 초기 사업화 단계	성장 및 성숙 단계	쇠퇴 및 변화 단계
성장단계	9.8%	32.3%	54.8%	3.1%

○ 기업 성장단계별 필요한 지원책(1+2순위 기준)

구 분	응답수	자금 (투자)	인력	기술 개발 (R&D)	판로 개척	협력 네트워킹 구축	교육/ 컨설팅	공간 지원	세제 혜택	기타
성	아이디어 기획 및 개발 단계	223	95 (42.6%)	41 (18.4%)	24 (10.8%)	39 (17.5%)	14 (6.3%)	2 (0.9%)	6 (2.7%)	1 (0.4%)
장	제품/서비스 초기 사업화 단계	737	310 (42.1%)	117 (15.9%)	72 (9.8%)	173 (23.5%)	27 (3.7%)	6 (0.8%)	14 (1.9%)	4 (0.5%)
단	성장 및 성숙 단계	1,256	462 (36.8%)	165 (13.1%)	124 (9.9%)	283 (22.5%)	56 (4.5%)	8 (0.6%)	13 (1.0%)	33 (2.6%)
계	쇠퇴 및 변화 단계	74	34 (45.9%)	6 (8.1%)	3 (4.1%)	23 (31.1%)	-	2 (2.7%)	-	4 (5.4%)

○ 비즈니스 모델

구 분	내 용	비 율
기업/기업가 지원	기업/기업가의 사업활동 지원 및 사회적 금융 서비스 제공	5.4%
제품/서비스 제공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제품/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	30.1%
플랫폼 운영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 (직접 매입 없음)	17.0%
상품 구매	지역 농어민 등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시장에 제공 (직접 매입 있음)	4.1%

구 분	내 용	비 율
고용 촉진	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 서비스 및 고용 기회 제공	22.7%
협동조합	회원들에게 회원 서비스를 통해 직접적인 혜택 제공	0.5%
보조금 제공	기업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취약계층 등에 제공	6.5%
기타	이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17.0%

○ 경영애로사항

구 분	자금조달	인력확보 및 운용	R&D 역량 등 기술력 향상	판로 개척	경영 역량 제고	업무 공간 확보	기타
협동조합	회원들	회원들	회원들	회원들	회원들	회원들	회원들
1+2순위	기업 할	기업 할	기업 할	기업 할	기업 할	기업 할	기업 할

출처 : 2020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중소벤처기업부(2020.12.)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통계 수치와 임팩트 생태계 내에서 마주한 상황들을 고려하면, 소셜벤처가 주로 겪는 어려움은 주로 사회적 문제의 인식과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이라는 것도 문화마다, 시기마다 다르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지 설득하는 과정과 그 문제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수혜자, 수요자 등 모든 관계자들을 설득하며 기존에 없었던 시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사업 수행에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벤처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자원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창업 후 누적된 시간과 적자로 인해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다.

일례로 2021년 아기유니콘으로 선정된 토도웍스(Todo Works)도 성장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향상시키는 미션을 가지고 수동 휠체어를 전동 휠체어로 바꿔주는 보조장치를 개발한 토도웍스는 2016년 11월 정식 판매를 시작, 2019년에 ‘유럽 의료기기 인증’을 받고 본격적으로 해외 수출됐으며, 2020년 오스트리아와 호주를 시작으로 26개국과 45개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세계에서 인정받는 보조기기 회사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해당 보조장치에 대한 별도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토도웍스는 유관기업들과 함께 식약처를 설득해 해당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급여품목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솔루션을 만들었지만 해당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일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됐다. 다행히 그간 임팩트 투자가 활성화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확장이 가능한 투자금을 민간에서 확보할 수 있어서 대표 사례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와 달리 자원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소셜벤처가 훨씬 많다. 54.8%에 해당하는 소셜벤처가 스스로를 성장 및 성숙 단계라고 진단한 만큼, 해당 단계에서 임팩트를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 자금/인력/판로를 개척하는 지원이 절실하다.

소셜벤처의 미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빠른 기술의 변화를 경험하던 지금 세대는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와 COVID-19로 인해 불안정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가장 변두리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먼저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외로 사회 불평등,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 ESG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토대의 필요성을 사회가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뚜렷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당면한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려는 소셜벤처는 ESG 경영을 넘어서서 사회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주체다. 이들이 만드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서 소셜벤처와 이를 둘러싼 주체들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소셜벤처가 필요성을 느끼는 자금유치, 인력확보, 판로개척 차원에서 지원방안들을 고민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나올 수 있다.

① 자금유치(투·융자, 지원금)

사회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그 단계도 분산돼 있는 만큼, 현재의 중심이 되는 지분투자 방식을 넘어서서 영리·비영리를 넘나들며 지분투자와 융자, 그리고 지원금을 포함한 혼합 금융 등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사회혁신 전문 펀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출자 구조를 지지해주는 정부와 민간의 출자자 및 운용사가 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필요성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도 같이 설계돼야 하므로 소셜벤처 투·융자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

② 인력확보

좋은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평균 근로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각

기업이 개별 대응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회적 시스템이 뒷받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인력을 유지하는 정책과 좋은 인력으로 성장시키는 정책 관점에서 소득세 감면 및 적극적인 자기개발 지원(복리후생)이 필요하다. 장기근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소득세 감면도 단순히 금액뿐만 아니라 근로기간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는 방안이다.

③ 판로개척

소셜벤처가 법적으로 정의된 만큼, 해당 판별을 받은 소셜벤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공공구매 정책에서 가산점을 주거나, 민간 기업이 해당 제품을 구매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 인센티브 정책을 고민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소셜벤처 육성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는 두 가지 기준을 통합적으로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한 가지 목적만을 추구하는 것보다 가중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그러므로 이들의 성장을 지원해줄 수 있는 단단한 토대가 필요하다.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일은 소셜벤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은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문 분야에서 자신만의 특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작지만 강한 우량 강소기업(強小企業)을 '히든챔피언'으로 지칭했다. 한국이 발전함에 따라, 한국의 기준이 국제 기준이 되는 분야가 생겨나고 있는 지금, 소셜벤처 분야 역시 임팩트 생태계에서 한국을 넘어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기준들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이다. 소셜벤처뿐만 아니라 소셜벤처 육성 분야에서도 국제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소셜벤처, 민간과 정부가 같이 노력해 각 분야에서 자신만의 특화된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임팩트 챔피언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궤도에 오른 소셜벤처, 법제화 이후 과제는?



사회 : 서종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책연구본부장)



패널 : 임성훈 (D3주빌리파트너스 파트너)

전일주 (임팩트얼라이언스 팀장)

김슬기 ((주)잇마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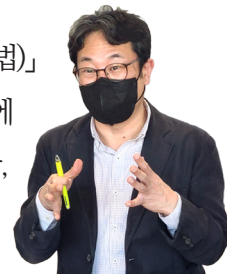
천자영 ((주)옴니아트 이사)

박장선 (성동구청 구정연구기획단 정책기획위원)

서종식 2021년 7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 벤처기업법)」

개정시행으로 소셜벤처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부여됐습니다. 그간에 소셜벤처도 사회적경제의 일원으로서 여러 지원이 이뤄져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던 점이 정부와 현장의 애로사항이었는데요.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법을 근거로 어떻게 정책을 설계해나갈지가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소셜벤처 법제화로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와 기대는 무엇인지, 소셜벤처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이 자리를 통해 논의해봤으면 합니다. 오늘 자리에는 소셜벤처를 포함해 소셜벤처 협의체, 임팩트 투자사, 소셜벤처가 활성화된 지자체에서도 참여해주셨는데요. 먼저 두 소셜벤처부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천자영



옴니아트는 ‘얼킨’이라는 브랜드로 시작했는데요. 신진 작가들의 버려지는 습작을 수거해 가방 등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 수익의 일부는 작가들이 지속적인 작업 활동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 스케일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얼킨캔버스

라는 플랫폼을 론칭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시각 라이선서인 얼킨캔버스로 패션을 통한 시각 IP(지식재산권)를 대중화해서 작가들이 본인의 작품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셜벤처이면서 예비사회적기업(창의혁신형)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슬기 잇마플은 환자분들에게 ‘맛있저염’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본인의 건강상태나 질병에 따른 식사법이 필요한데요.

병원에서 퇴원하면 모든 걸 환자나 보호자가 챙겨야 해서 잘못된

식습관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식사법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유지하기도 어렵고요. 이런 문제의식에서 환자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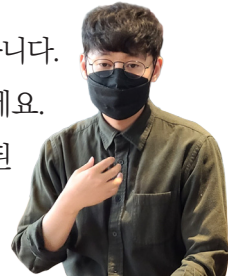
들의 건강상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 식사를 정기 배송해드리는 서비스를 시작했습

니다. 까다로운 질병으로 알려진 콩팥병부터 시작해서 당뇨, 갑상선암 등 저희가 비즈

니스 영역을 넓히는 일이 곧 사회적 가치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

니다. 그리고 식사법이 중심이지만 저희는 식품회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헬스케어

플랫폼도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소셜벤처 판별만 받아둔 상태입니다.



2021년 12월, 잇마플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한국에자이와 함께 갑상선암 환자들을 위한 요오드 조절식 2주 식단 '맛있저염'을 출시했다. - 출처 : 내일신문(2021.12.20.) -

전일주 임팩트얼라이언스는 말 그대로 소셜 임팩트를 추구하는 조직들의 협의체입니다. 저희가 기존 협의체와 다른 점은 보통 동종 업종으로 모이는데 소셜 임팩트 생태계의 얼라이언스라는 같은 지향점을 가진 다양한 조직들이 모였다는 거죠. 이제 만들어진 지 2년 정도 됐는데 아직은 정체성을 확립하고 알려나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역할을 크게 보면 퍼실리테이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생태계 관점에서 정부와 현장 사이에 굉장히 많은 협력이 필요하고 연결돼야 하는데 소셜벤처는 각자 사업을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다른 네트워크와의 협력이 말처럼 쉽지 않죠. 내부적으로 회원사 간 교류를 촉진하거나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현장의 의견을 어떻게 정책 언어로 바꿔서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일은 소셜벤처의 법제화였고요. 오늘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저희의 과제이자 해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임성훈 D3주빌리파트너스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성장이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대한민국에서 증명해보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벤처 캐피탈이기 때문에 사업활동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소셜벤처를 지원하고 성장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출자자와 투자자가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들어와서 외연을 선순환 구조로 확대하는 거죠. 출자해주신 분들을 보면 초기에는 재단의 CSR재원으로 참여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임팩트 투자를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 저희 출자자 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와 만나면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게 성장하는 것을 고민하는 창업자가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임팩트 투자를 통해서 출자자와 창업자들에게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소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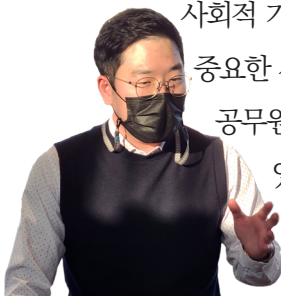


서종식 성동구청에서 소셜벤처 업무를 하고 계신 박장선 위원님이 성동구청, 즉 기초지자체의 활성화와 노력과 소셜벤처를 통해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장선 2014년도에 성동구청장님이 부임하시면서 바로 하신 일이 소셜벤처 1세대로 불리는 분들을 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지자체라는 한계는 있지만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지역 생태계를 구축해야 성수동이라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전국 최초로 소셜벤처 지원 조례를 만들기도 했고요.

현재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은 전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성동구에 계신 주민들이 소셜벤처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포이엔과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의 커피 찌꺼기를 수거하고 있고요. 온라인 교육 어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인 에누마와는 관내 취약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26개 기초지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가장 큰 플랫폼이기 때문에 소셜벤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지자체에 사업을 제안하면 담당 공무원이 자리가 바뀌어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든가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죠. 그럼에도 성동구는 사회적 가치 추구나 소셜벤처와 연대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역주민이 효능감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하는 지자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소셜벤처 법제화가 가지는 의미 |

서종식 소셜벤처 법제화가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먼저 느끼는 변화보다 아직은 기대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김슬기 소셜벤처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사회적기업과 같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외면 받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법제화로 인해 소셜벤처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소셜벤처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생기게 됐다는 점이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가진 소셜벤처임을 증명하는 게 적절한 방식인지 의문은 있었지만요.



전일주 대표님 말씀처럼 소셜벤처는 회색지대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쪽에 가면 너무 세속적으로 보기도 하고, 스타트업 쪽에 가면 너무 이상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힘을 합쳐보려고 성수동에 모였는데, 사회 전반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가 중요해지니까 소셜벤처도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됐고요. 회색지대가 공식적인 이름을 가지게 됐죠. 스타트업과 투자를 중심으로 사회 문제에 도전하는 새로운 방법론이 제도권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자본시장 쪽에서도 이곳이 가능성이 있는 시장인지 보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소셜벤처를 정의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시그널을 준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소셜벤처 판별기준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가장 적합한 부분을 일단 찾은 거죠. 그렇지만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걸로 판별이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행정에서는 “이걸 하나하나 어떻게 확인하느냐”라는 말도 있고요. 계속 풀어가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천자영 저희는 사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되고서도 큰 변화는 없었어요. 사회적기업은 공식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가진 걸 인정받은 건데, 일부 지원은 받았지만 스케일업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부분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희도 부딪쳐보니까 스타트업으로서 직면한 문제는 펀드레이징이었어요. 저희 비즈니스모델이 활성화돼야 사회적 가치도 덩달아 커지는 구조인데요. 사회적기업 지원제도가 도움이 안 된 건 아니지만 지원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기에는 제도의 방향성이 다소 미시적인 느낌이었어요. 사회적기업보다는 벤처의 특성이 강하니까요. 사회적 가치의 창출과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종식 기존의 사회적기업 지원제도가 사회적 가치의 확장을 촉진하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었는데, 소셜벤처 법제화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셨네요. 임팩트 투자자 입장에서 소셜벤처 법제화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번 좌담회는
국내 대표 소셜벤처밸리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소재한 소셜벤처 공유오피스 '헤이그라운드'에서 진행됐다.

임성훈 임팩트 투자사로서 소셜벤처를 지원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자본시장의 관점을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전달하는 것도 오늘 간담회에서 저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투자의 속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과 투자를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투자와 대출은 다릅니다. 투자는 퀀텀점프 성장과 규모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시리즈A, 시리즈B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시리즈C, IPO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도 다른 사람들이 맡긴 돈을 관리·운용하는 입장인데 “수익률이 안 나와도 돼”라고 하셨으면 출자자들이 임팩트 투자에

돈을 안 맡기고 기부를 하셨겠죠. 즉, 투자는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IPO까지 계속 연결돼야 하고, 테헤란밸리의 주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모형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번 소셜벤처 법제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투자 측면에서 투자를 위한 방법이라든가 대상은 「벤처기업법」이 아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법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벤처기업법」에 소셜벤처 정의가 들어간 건 굉장한 진전이지만, 투자가 어떻게 이뤄지느냐 측면에서 실제 소셜벤처에 대한 투자방법이 개선된 건 없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투자 방법은 소셜벤처와는 상관없이 운영되고 있으니깐요. 「벤처기업법」에는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투자(제16조의8)”라는 문구, 딱 하나 있어요. 법제적인 요건을 따지자면 소셜벤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후속 보완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종식 지자체 중 최초로 소셜벤처 조례를 만들었던 성동구청은 이번 법제화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박장선 행정적인 측면에서 투자와는 다른 점이 있는데요. 지자체는 조례에 관련 내용이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벤처를 키우고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조례를 먼저 만들었고요. 소셜벤처 판별기준과 다르게 사실상 법인이면 될 정도로 소셜벤처를 굉장히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소셜벤처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고요. 성동구 내에 많은 민간 부문의 지원조직이 있어서 임팩트 투자사에서 투자를 받거나, 액셀러레이터가 키워낸 기업을 소셜벤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제화는 공무원 입장에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법적인 테두리가 있어야 하거든요. 아직까지 소셜벤처라고 하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될 것 같은 인식이 일부 있기도 하고요. 법제화를 통해 공무원과 관계된 분들의 인식이 바뀌고, 행정에도 속도감이 생길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소셜벤처의 자금조달과 사회적 가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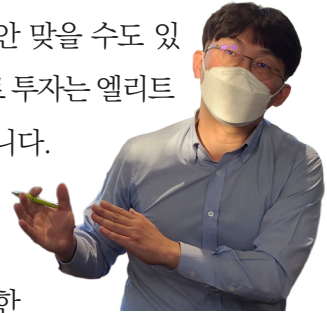
서종식 임성훈 파트너님이 잠깐 말씀해주셨던 투자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소셜벤처 입장에서 투자를 받으려고 할 때 어떤 점이 좋았고, 힘들었는지 투자 경험이나 고민을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임성훈 사실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에서는 결이 안 맞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일반 벤처와 같이 소셜벤처도 마찬가지로 투자는 엘리트 중심의 소수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10배 수익은 나야 합니다.

단순히 말해서 10개 중 9개는 망하니까 1개가 10배 수익이 나야 펀드 수익률 10%가 맞춰질 수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임팩트 투자사가 투자하는 영역은 IPO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소수 기업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임팩트 펀드들이 100~150억 정도 밸류에이션에서 시리즈A 투자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18개월 후에 이 회사는 300~500억 밸류에이션에서 다음 시리즈 B 투자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계획과 비전이 없다면 지분투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시리즈 B 이후의 투자부터는 자금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일명 테헤란밸리의 상업적인 투자사의 투자를 함께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임팩트 투자사의 역할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돈을 못버는게 아니야. 오히려 비즈니스 모델과 성장성을 강화하고 있어. 시리즈 A 투자 이후 거둔 성과로 증명하고 있잖아? 이번에 우리도 또 투자한다니까” 라고 후속투자 세일즈를 돕는거죠.

대출을 못 받으니까 또는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니까 투자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창업자도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원금과 대출과 지분투자의 성격을 잘 모르고 지분투자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만남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록 벤처투자쪽에 있지만, 법제화 이후 소셜벤처 제도 보완의 방향은 기보나 신보의 대출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퀀텀점프나 IPO 모델이 없어서 투자를 못 받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원금과 이자는 갚을 수 있거든요.

이전 질문과 연결하자면 소셜벤처에 대한 정책 대출과 보증이 커진다는 전제 하에, 임팩트 투자 분야는 ①IPO를 갈 수 있는 소셜벤처를 발굴해내고 ②시리즈 B 이후를 테헤란밸리에 세일즈 할 수 있고 ③소셜벤처로서의 성장전략을 지원하는 임팩트 투자사에 정책 리소스가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PO 등으로 민간투자금이 회수하고 소셜벤처에 재투자/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는 법과 규정으로 만들어갈 수 없거든요. 소셜벤처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IPO까지 성장하는 사례가 많이 나와야,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대한 민간 투자자의 편견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천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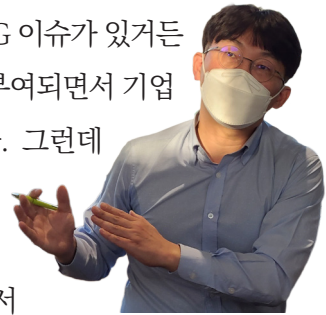


저희는 처음에 신보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는데요. 저희가 분명하게 가진 사회적 가치는 당시 보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가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적인 근거나 가산점이 있다면 기업이 초기 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할 때부터 사회적 가치를 만들려는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소셜이라는 타이틀이 무의미해질 수 있거든요. 즉, 소셜벤처라서 초기 지원을 받을 때까지는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가다가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게 회사의 표족한 골자는 아니게 된다는 점인데요. 투자를 유치하면서 저희가 가진 사회적 가치는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결국 중요한 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죠. 저희의 경우 21년 4월에 시드 투자를 유치했고, 지난 12월 Pre-A 라운드 투자를 유치한 단계에 있는데, 시드 단계까지는 사회적 가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투자자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로서의 의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1월, 하이트진로는 예술가 등 라이선서(Licenser)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등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해 옴니아트와 지분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옴니아트가 운영 중인 얼킨캔버스.

출처 : ㈜옴니아트

임성훈 자본시장에서 임팩트 펀드로 내려오는 점점에는 사실 ESG 이슈가 있거든요. 2025년부터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ESG 공시의무가 부여되면서 기업마다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점은 ESG는 단순히 지표가 아니라 회사의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를 들어 회장이 어느 날부터 “오늘 ESG 경영 시작이야”라고 말한다고 해서 기업 문화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언제부터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할지 보면 시스템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리즈A 투자 받을 때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회사 내부 문화도 만들어야 하고, 외형적으로 성장도 해야 하고 정신없을 때거든요. 이때 ESG/임팩트 관점의 성장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투자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지요. 대표가 그런 생각을 꾸준히 투자자와 논의하면서 가지고 가면 기업의 핵심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고요. 시리즈A 때 입사한 직원들이 시리즈C를 받을 때는 중간관리자로 성장해서 회사의 철학과 소셜벤처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도 있겠죠.

창업할 때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기업이 성장하면서 투자자도 많아지고, 직원도 많아지다 보면 대표이사 창업 동기대로 운영되지는 않는데요. 때로는 퇴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투자를 할 때 비즈니스모델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회사와 합의 하에 KPI를 만듭니다. 기업의 재무지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임팩트 KPI, 예를 들어 CO2 절감량,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량, 연간 이사회 개최 횟수 등을 보고받게 됩니다. 회사가 소셜벤처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다 보면, 나중에 들어온 재무적 투자자나 직원들이 회사의 사회적 가치 추구가 자연스러워지고, 그게 회사의 문화로 자리 잡게 만들자는 거죠. 이러한 점이 재무적 투자수익에만 관심을 갖는 투자자와 임팩트 펀드와의 차이점입니다.

김슬기 저희도 낮은 단계에서는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준 경우도 있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희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셜벤처로서 스케일업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시는 지난해부터 국제

기준에 맞춰서 연 단위로 시도해보고 있어서 공감이 된 부분이네요. 저희도 신보를 통해 대출을 받았었는데요. 일반 보증이었지 소셜벤처의 특성을 고려한 대출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소셜벤처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대출이 있었다면 저희도 충분히 지원했을 거라서 이후에 조금은 제도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일주 대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고민이 따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기보에서 임팩트 보증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다만 아직은 인지도가 부족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직접 사회적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 실무자들도 익숙지 않아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소셜벤처 법제화가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간의 사회적경제는 자본과 금융을 이용해 산업으로서 성장하는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요. 이제 점점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자본이 마련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소셜벤처 법제화는 그 새로운 단계를 여는 역할인 것 같아요.

앞으로 자본이 더 잘 흐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는지 판단하는 일이 점점 중요해지는데, 그래서 소셜벤처 법제화 이후 과제로 임팩트 워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정부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넘어서 스타트업인 곳들도 사회적 가치를 공시하도록 좀 더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습니다.



| 사회적 가치 판별과 측정 노력 |

서종식 사회적 가치 측정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엇이 사회적 가치인지, 다른 하나는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지에 대한 건데요.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준비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까요?

임성훈 이 이슈는 2017년부터 논의가 있었는데요. 사회문제가 계속 변하고 진화하는데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을 법제화, 규정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임팩트 투자

분야에서는 UN-SDGs가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고, 한국 현실에 보다 부합하기 위해 K-SDGs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표들을 저희 투자 포트폴리오에 넣으면 적용이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게 훨씬 많죠. 그렇다고 사회적 가치의 선명성이 흐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팩트 펀드가 출범할 때, 임팩트 투자 경험을 갖춘 투자사의 판단에 맡겨보자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기술보증기금에서 만든 '소셜벤처 판별표'를 보완해, 소셜벤처 스캐어에 공지된 '소셜 벤처 자가진단'도 대출 보증에 사용된 점도 발전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사회적 가치 측정이 어렵다면, 사회적 가치 측정기준을 별도로 정의하기보다는 책임투자를 하게 만들고,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창출되는 임팩트 KPI를 자율적으로 설정해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기업들의 임팩트 KPI 설정근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회사가 성장하면서 개선을 해나가면 되거든요. 경험적으로 첫 기관투자를 받는 시점부터 임팩트 KPI 설정이 되지 않으면, 시리즈 B 이후에는 소셜벤처로서의 정체성을 회사에 녹여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투자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임팩트 액셀러레이터, 기보·신보의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그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소셜벤처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 거니까요,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일주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소셜벤처 판별기준에서는 임팩트 투자를 받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죠. 저는 궁극적으로 이 판별표가 덜 쓰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계속 사회적 가치 판별이라는 완성 불가능한 미션에 직접 라벨을 붙이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왜곡이 발생하니까요.



한편으로 어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특히 금융에서 이게 필요하죠. 앞서 신보·기보뿐만 아니라 금융 전반이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움직이려면 명확하고 판단하기 쉬운 기준이 있어야 하니까요. 판별기준의 중요한 역할이 자본의

흐름에 근거가 돼주는 건데, 개별 사례마다 다른 투자사의 기준을 따른다고 하면 특히 예산과 정책자금 등 상류에서 돈의 흐름을 결정할 때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지금 대안으로서 고민 중 하나는 텍소노미(Taxonomy: 분류체계)를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SDG가 연역적으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이런 걸 해야 돼”라고 위에서 만든 거라고 하면, 텍소노미는 귀납적인 방식인데요. 약 10년의 기간 동안 어떤 소셜벤처의 사례와 유형, 사업이 있었는지 카테고리화만 잘 해놔도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소셜벤처 판별을 지원하고 임팩트 워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계속 함께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종식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는 지점은 목적에 맞는 평가는 현장에서 알아서 한다, 그걸 정부가 모두 정할 필요는 없다는 건데요. 성동구청에서는 물론 임팩트 투자사나 액셀러레이터를 믿는다고 말씀은 주셨지만 소셜벤처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측정을 해야 할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장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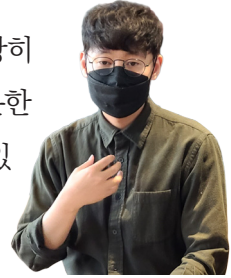
성동구에 300~400개 소셜벤처와 3,000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소셜벤처의 유입이 지역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정량 지표로 나타내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딱 유의미한 지표가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저희가 주민을 위해 추진하는 많은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보려고 하고요. 이는 곧 정책에 대한 공감과 효능감을 높이면서 또 하나의 소셜 시장을 여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200여개 지자체가 각 지역에서 소셜벤처와 주민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잘 한다면 그게 결국 주민의 효능감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성동구청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종식

소셜벤처도 사회적 가치를 정량화해보려고 했을 텐데요. 이에 대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김슬기 국제 기준을 따라서 해봤지만 대체로는 수치로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우리 사업을 너무 담지 못한다는 생각에 서운한 감정도 느꼈고요. 분명 환자분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환자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데 기여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당연히 수치는 누군가와 소통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비즈니스 외적인 활동들이 담기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서종식 우리의 사회적 가치를 담는 그릇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천자영 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겨보는 식으로 회사가 가진 사회적 가치를 자체 평가해보면 상당히 엄격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기업이나 사업이 많아짐으로써 만들어지는 새로운 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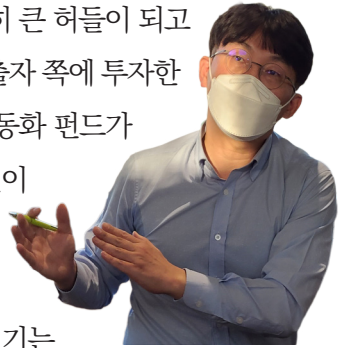


|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추가 과제 |

서종식 법제화 이후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보다 신경을 썼으면 하는 과제는 무엇 일까요?

임성훈 정부 지원 또는 민간 기부에 의해 모든 소셜벤처를 키울 수 없죠. 그런 방식으로만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소셜벤처에 대한 리소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누느냐는 건 다음 문제이고, 일단은 어떻게 파이를 더 키울 건가에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돈의 흐름은 아주 단순합니다. 돈 벌었다는 소문에 돈이 몰리거든요. 해외 사례를 보면 시장 수익률을 추구하는 임팩트 펀드가 주류이고, 보통 연 평균 수익률로 중간값이 1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임팩트 VC, 액셀러레이터들이 갖는 고충은 출자자들이 “지금까지 성과는 괜찮은데 정말 4~5년 후에 제대로 회수할 수 있겠어?”라며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펀드가 결성되는 데 굉장히 큰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일부 재원을 임팩트 펀드 출자 쪽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를 도와주는 세컨더리 펀드 또는 LP지분 유동화 펀드가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출자자들이 CSR 차원이 아닌 규모 있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 자금 회수 여부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기 마련인데요. 이런 펀드가 있으면 상장이나 인수합병 외에 중간단계의 자금 회수 창구가 생기는 거니까 안정감을 줄 수 있거든요. 또한 IPO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소셜벤처들에게 임팩트 투자자 지분이 임팩트 세컨더리 투자자로 이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한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으로 난리였을 때 실제 작동했던 사례인데요. 소부장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사가 10억 원을 투자하면 산자부에서 그 회사에 20~30억짜리 R&D 과제를 매칭해 줬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된 게 중기부의 팁스(TIPS) 제도로서, 액셀러레이터가 1~2억 원을 투자하면 최대 8~9억 원의 지원금을 주거든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소셜벤처가 상장사례가 많이 나오고 민간 투자자들의 자금이 모이려면, 이처럼 점프업 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생겨야 합니다. 더불어 소셜벤처의 외연도 확장돼야 하고요.



전일주 보다 넓은 관점에서 말하면 소셜벤처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주로 투자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생태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임팩트얼라이언스 입장에서 소셜벤처는 사회적기업과 구분되는 새로운 유형이 아니라, 집중과 투자를 동력으로 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규정하고 싶어요. 소셜벤처를 너무 좁게 정의해버리면 선을 긋는 게 돼버려서 “저기는 소셜벤처라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못 받았네”라는 논의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소셜벤처라는 단어와 흐름은 좀 더 광류로 가지고 가서 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벤처적인 방법론으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종식 벤처기업법에 소셜벤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범위가 좁아질 것을 우려하는 논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영리 소셜 벤처가 가능할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기도 합니다. 소셜벤처가 법적으로 호명을 받았지만 조금 색깔이 다른 기업은 배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오늘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성동구 정책 현황 및 성과, 향후 과제

박장선 성동구청 구정연구기획단 정책기획위원

1. 성동구 소셜벤처 정책의 특징

현재 성동구는 300여개 이상의 소셜벤처와 3,000여명 이상의 구성원이 다양한 사회혁신 활동을 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소셜벤처벨리다. 성동구는 2017년 전국 최초로 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21년 상위 법령에 의해 소셜벤처의 법적 지위가 부여된 사실을 보면 매우 앞선 조치다. 소셜벤처를 하나의 새로운 비즈니스로 보는 관점에서 성동구의 소셜벤처 정책은 아래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인 기업지원 정책과는 기능적으로 다른 두 가지 차별점을 가진다.

가. 도시재생 정책의 일환이라는 측면

성동구 소셜벤처 지원정책의 시작은 2015년 9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로 볼 수 있다.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로 도시재생에 따른 문제점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정책의제화 한 전국 최초 사례였다.

민선6기 성동구청은 지리적 이점에 비해 과거 준공업지역으로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에 집중했다. 민선6기가 시작된 2014년은 서울숲과 한강변이 주는 자연적 이점과 높은 수준의 교통 편의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사회혁신가들에게 성수동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다. 현재 성수동의 핫한 장소로 자리매김한 다양한 문화공간이 문을 열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성수동에 자리잡은 소셜벤처가 가파른 임대료 상승을 견디지 못해 지역을 떠난다면 다른 지원정책의 의미는 없어진다. 이런 맥락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는 소셜벤처에 입지적 안정성을 부여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성수동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토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성수동을 소셜벤처가 모여드는 지역이 되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했다.

나.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접근한 간접지원 정책이라는 측면

성동구청의 소셜벤처 정책은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지원이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점은 2017년 제정된 「성동구 소셜벤처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소셜벤처의 규정 범위에 잘 드러난다. 특히 이 조례에 따라 성동구청이 인정하는 소셜벤처는 상법과 민법에 규정된 대부분의 법인이다. 이처럼 포괄적인 규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집적에 따른 자연스러운 민관협업체계에 있었다.

성동구에는 소셜벤처 지원기관으로 볼 수 있는 민간의 임팩트 투자사, 엑셀러레이터 등과 함께 컨설팅 및 교육, 코워킹스페이스 기능을 하는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중소벤처기업부), 소셜캠퍼스온(고용노동부), 소셜벤처허브센터(성동구) 등 다양한 민관 요소가 집적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지원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조례에 한정적으로 소셜벤처를 규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합의에 의해 소셜벤처를 인정하는 생태계가 작동한다. 성동구청이 소셜벤처 지원정책 대상을 배타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민간에 최대한 위임한 점은 자연스러운 소셜벤처벨리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2. 성동구의 소셜벤처 정책 현황 및 성과

가. 도시재생 정책의 일환이라는 측면

소셜벤처 지원정책을 넓은 의미의 창업지원 정책으로 봤을 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가 제정된 2015년 이전에는 주로 청년, 장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창업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기존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는데 집중됐다. 2014년 루트임팩트(Root Impact), 소풍(Sopoong) 등 임팩트 투자사가 성수동에 처음 자리 잡기 시작하고, 2015년 카우앤독을 시작으로 헤이그라운드 등 소셜벤처를 위한 코워킹스페이스와 옐로우독(Yellowdog), 크레비스 파트너스(Crevisse Partners) 등의 임팩트 투자사가 본격적으로 성수동에 입지하면서 자생적인 소셜벤처 생태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기존의 창업정책은 소셜벤처 분야로 확장됐다. 성동구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 성동구청. 2020.6.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부터 지난 2021년 10월 성수동에서 개최된 제5회 소셜벤처 엑스포까지 성동구의 주요 소셜벤처 지원정책은 민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도 유기적으로 전개됐다. 주요 경과는 아래와 같다.

| 표 1. 성동구와 정부의 주요 소셜벤처 지원정책 추진경과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15.9.)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 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조례」 제정('17.9.)
-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문재인 대통령 참석, 「제3차 일자리위원회」 개최('17.10.)
- 제1회 소셜벤처 엑스포 개최('17.11.)
- 관계부처 합동,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발표('18.5.)
- 제2회 소셜벤처 엑스포 개최('18.11.)
- 기술보증기금, 성수동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개소('18.11.)
- 중소벤처기업부, 성수동에서 「성수 소셜벤처 벨리」 지원방안 논의('19.6.)
- 제3회 소셜벤처 엑스포 개최('19.10.)
- 제4회 소셜벤처 엑스포 개최('20.1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을 통해 소셜벤처 법제화('21.7.)
-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1.9.)
- 제5회 소셜벤처 엑스포 개최('21.10.)

성동구청은 2017년 전국 최초로 「청년 소셜벤처 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인 '소셜벤처팀'을 일자리 정책과 소속으로 신설해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성동구에 입지하는 소셜벤처 수는 2015년 142개에서 2020년 339개 이상 증가했다²⁾.

나. 주요 소셜벤처 지원정책 현황

성동구의 소셜벤처 지원정책 목표는 맞춤형 성장 지원과 협력 기반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허브 구축에 있다. 이에 따라 현재 4개 분야 10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1) 성동구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 성동구청. 2020.6.
2) 성동구 소셜벤처 육성 및 발전 방향 수립 연구보고서. 성동구청. 2019.9.

| 표 1. 성동구 소셜벤처 지원정책 목표 |

1. 소셜벤처 재정 지원 강화	1. 소셜벤처 재정 지원 강화
① 성동임팩트 벤처투자조합 운용 ②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	① 창업발전소 운영(컨설팅) ② 소셜벤처 청년 내일 찾기 ③ 소셜커리어 성장 프로그램 운영
3. 업무공간, 홍보, 판로 지원	4. 지속적인 협업 체계 구축
①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② 온오프라인 소셜벤처 가치장터 ③ 소셜벤처 지원플랫폼	① 서울숲 소셜벤처 엑스포 개최 ② 찾아가는 소셜벤처팀 운영

① 성동 임팩트 펀드

2018년 정부의 적극적인 소셜벤처 지원정책으로 상당한 규모의 임팩트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가 조성됐다. 이는 소셜벤처의 스케일업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됐으나, 지역에서는 투자시장에 조성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의 기업 가치를 가진 소셜벤처가 많지 않다는 미스매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일정 규모의 기업 가치가 있는 소셜벤처를 육성하기 위해 더 밑단에서 더 많은 소셜벤처가 인큐베이팅 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성동구청은 매년 60억원 규모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5억원을 출자해 총 20억원 규모의 임팩트펀드를 조성했다. 이에 앞서 투자 활성화와 지속적인 연계 투자를 위해 관내외 10개 투자사와 임팩트VC네트워크 임팩트VC네트워크³⁾를 결성했다. 2021년 12월 현재 관내외 소셜벤처 등에 약 12억원을 투자함으로써 스케일업의 발판이 되고 있다.

② 소셜벤처 허브센터

성동구에는 소상공인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걱정 없이 주변보다 약 70~80% 저렴한 임대료로 5년 이상 안정적인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안심상가가 조성돼 있다. 이들 중 8층 건물로 조성된 성동안심상가의 4~6층에는 연면적 1,946㎡ 규모의 소셜벤처 허브센터가 있다. 이곳에 현재 기준 24개 소셜벤처가 입주해 있는데, 입주사는 별도 선정과정에 의해 선발되며 입주공간 외에도 회의실과 비대면 면접 또는 발표를 위한 스튜디오를 활용할 수 있다.

3) 임팩트VC네트워크 현황: 고려대학교기술지주, 대성창업투자, 더웰스인베스트먼트,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비하이인베스트먼트, 신한대체투자운영, MYSC, 와디즈, 인사이트에쿼티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한편, 성동구청은 소셜벤처 허브센터 5층에 창업 발전소를 운영하며 컨설팅과 관내 지원조직 연계 등 입주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인 기업 컨설팅 외에 기술기반 소셜벤처를 위한 기술 컨설팅도 제공한다. 기술 컨설팅을 통해 입주 기업인 오파테크와 LAR은 자사 제품의 기술 및 특허 문제를 해결한 성과가 있다. 그리고 2019년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하고 소셜벤처 허브센터로 입주한 오버플로우는 기술 컨설팅을 통해 2021년 정부의 한국판 뉴딜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소셜벤처 허브센터는 단순한 공간지원 외에도 투·융자 연계, 기술 컨설팅,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등을 통해 성동구 소셜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③ 소셜벤처 엑스포



소셜벤처 야의 팝업스토어(LAR)



소셜벤처 라이브커머스(119레오)



임팩트 투자 현황과 미래 주제로론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

소셜벤처 엑스포는 2017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5회차를 맞이했다. 매해 전국 150여개 이상의 소셜벤처와 1,500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지역 최대 행사다. 소셜벤처라는 용어가 생소했던 2017년부터 이를 알리기 위해 시작된 소셜벤처 엑스포는 비즈니스와 사회적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 통한 기업 성장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 행사는 타 지자체의 공공구매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부터 시장 판로개척, 소셜벤처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혁신경연대회, 올해의 소셜벤처 트렌드와 향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컨퍼런스 등으로 구성된다.

성동구청은 매년 소셜벤처 엑스포를 기획하는데 있어 지역의 소셜벤처 및 민간지원기관과의 협업을 최우선으로 한다. 민간과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 행사를 기획함으로써 소셜벤처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4. 향후 과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상위 법령에 의한 소셜벤처의 법적 지위 부여는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소셜벤처는 민간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즉 공익을 위한 비즈니스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성장할수록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가 더 커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소셜벤처벨리 조성의 핵심이다. 현재 성동구에는 소셜벤처의 성장단계별로 민관의 다양한 지원체계가 구축돼 있다. 소셜벤처를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성동구 성수동에 모이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지속적인 성장 사례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는 성동구를 포함한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래 두 가지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도시재생 정책의 일환이라는 측면

성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내 소셜벤처 에누마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비대면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2019년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Global Learning XPRIZE)⁴⁾에서 우승한 에누마는 학습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의 아동도 태블릿PC만 있으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소셜벤처다. 사회적기업 행복커넥트와는 관내 독거노인에게 AI스피커를 활용한 원격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복커넥트는 AI스피커로 접수되는 발화데이터 등을 통해 긴급 상황도 관리한다. 이 밖에 임신부를 위한 단기 가사도우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위 사례는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로 성동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확대돼 추진되고 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곳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방정부 입장에서 소셜벤처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사회적경제조직은 중요한 파트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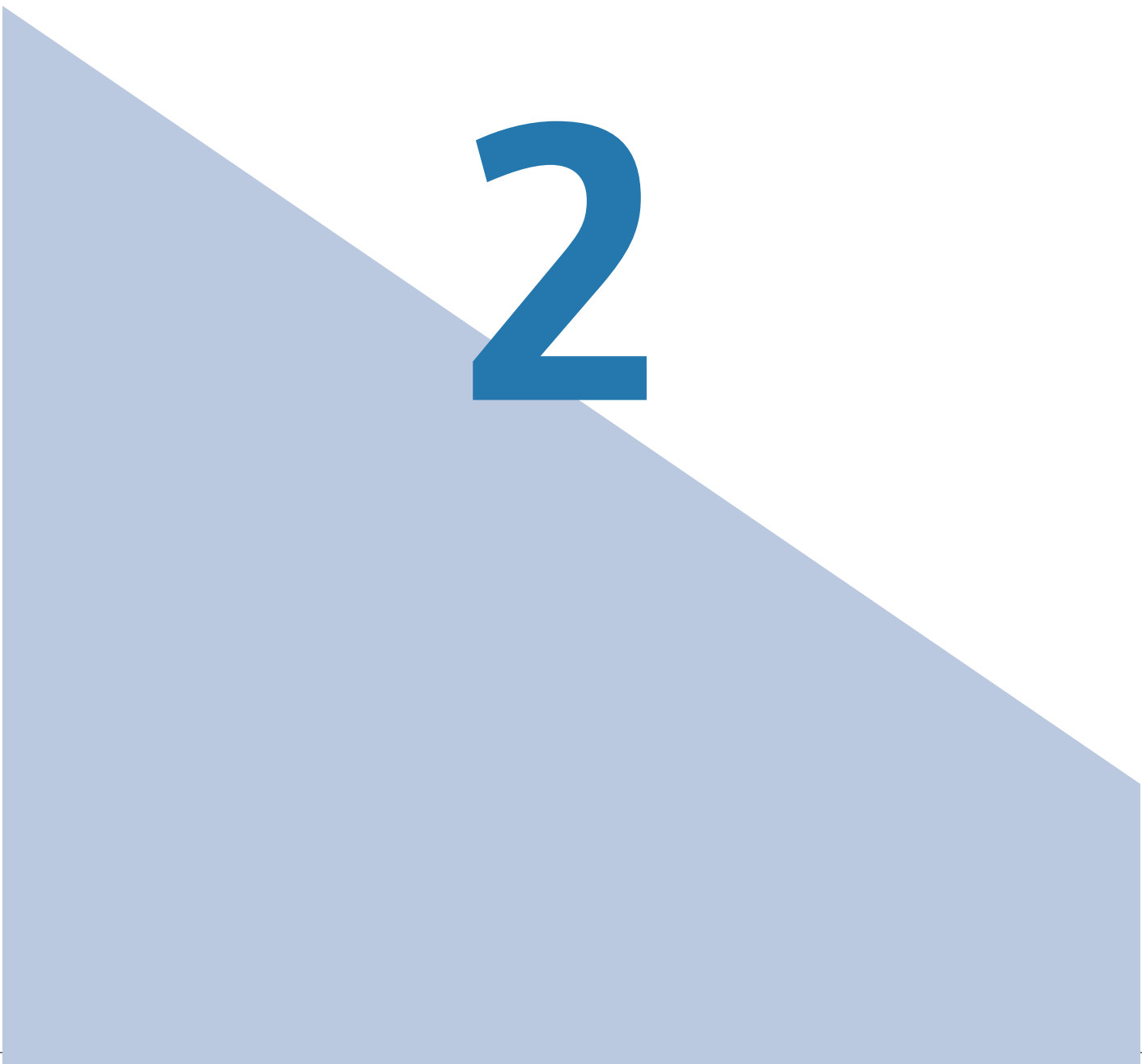
지방정부 차원에서 민관협력의 형태가 대부분 위·수탁 또는 단순조달 방식에 수렴되며, 그 외의 방식에 대해서는 비교적 경직적이다. 하지만 계약에 의한 위계구조가 아닌 협력에 의한 동반자구조는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주민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구조로 민간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보장하되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연한 협업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셜벤처가 더 많은 지방정부와 협업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 Bed)이자 플랫폼 기능(주민효능감 향상 측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7%씩 7년간 생활폐기물 50% 감축을 목표로 하는 성동구청 입장에서 매일 관내 500여개 커피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중요한 해결과제다. 성동구청은 소셜벤처 포이엔과 협력해 커피찌꺼기 수거체계 구축과 커피찌꺼기로 만든 미생물 배터리로 준공업 지역의 어두운 밤거리를 밝히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AI영상분석 기술을 보유한 소셜벤처 라이트비전이 CCTV를 활용한 주차공유서비스를 개발하는 테스트베드로도 활용되고 있다. 2021년 시범서비스 결과, 공유를 통한 거주자주차구역 활용률이 최대 8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차 한 면 당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시 입장에서 주차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자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 주민이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전 과정에 참여하는 리빙랩이라는 방법론이 아니어도 이미 각 지방정부에는 다양한 주민참여 창구가 있다. 즉, 지방정부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최고의 주민 참여 창구이자 테스트베드를 통해 해결책을 고도화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런 플랫폼을 활용한 성과와 사례는 참여한 주민들의 효능감 향상으로 돌아온다. 주민효능감 향상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결국 다양한 영역에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테스트베드가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이유다.

4) 세계 최대 비영리 벤처재단인 엑스프라이즈 재단(X-PRIZE Foundation)에서 진행하는 전 세계 아동 문맹 퇴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2



정책 정보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

출처: 소셜벤처스퀘어(<https://sv.kibo.or.kr>)

① 사회성 판별표

사회성 판별표			
사회성 판별표		점수	비 고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 인증	1	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가 및 인증받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또는 비Corp(B-corp) 인증을 받은 기업	100점 예비사회적 기업의 경우 70점
사회적 가치 추구 정도	2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 중인 기업(단, 기획단계부터 사회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실제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 K-SDGs 세부목표와 연계	70점 판별근기 입력
	3	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 ¹⁾ 되어 있고, 추진 ²⁾ 중인 기업	50점
	4	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보고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 ²⁾ 하고 있는 기업	50점
	5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이윤의 배분」 및 「청산 시 처분 제한」 원칙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 ²⁾ 하고 있는 기업	30점
	6	이해관계자(근로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 ²⁾ 하고 있는 기업	30점
			정관 외 기타증빙 ³⁾ 은 50%만 인정
사회적 가치 추구 정도	7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 임팩트 분야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	100점
	8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창업 후 3년이내인 경우 대표자 수상 경력 포함)	30점
	9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업	20점
	10	외부기관과의 MOU, 상생협약, 협력관계 등 사업의 주목적과 관련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실행하고 있는 기업	20점
대표자의 사회적 가치 창출수준	11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조직(기업의 해당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	10점 1년 이상 5점 부여
	12	대표자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 또는 소셜벤처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활동(대학 동아리, 대학창업, 공모전 등)을 수행	10점
점 수 합 계 (70점 이상인 경우 사회성 인정)			점

구 분	2번 항목 판별근기 입력
◆ 사회적 문제주1) 해결	제품·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간략히 기술(K-SDGs 세부목표와 연계)
◆ 제품·서비스 기획단계부터 사회문제해결, 사회적 가치창출이 의도되었는지? ◆ 그리고, 그것이 실제 제품에 적용되었는지?	근거를 간략히 기술 (사업계획서, 특허 공개전문 ^{주2)} , R&D 계획서, 실제 제품 확인 등을 통해 평가자가 직접 확인)

주1)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으로 현저하게 다수가 공통 받고 있는 상태

주2) 통상적으로 특허 공개전문에 본 특허를 발명하게 된 배경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기술함

1) 예시 :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의 자유 추구 등

2) 관련 증빙자료는 기업 스스로가 제출해야 함(단,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증빙없이 점수 부여)

3) 정관 외 미션선언문, 사업계획서, CSR 보고서 등을 말함

② 혁신성장성 판별표

혁신성장성 판별표			
판별 항목		점수	비 고
기술의 혁신성	1	법령상 인증·확인 보유 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100점
	2	기술력 또는 상품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증 ⁴⁾ 을 보유한 기업, 기술신용 평가기관(TCB)으로부터 「T4」등급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 등급 「BB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	70점
	3	중앙정부의 “혁신성장공동기준” ⁵⁾ 에 따른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30점
사업의 성장성	4	상시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10%) * 단, 상시종업원 5인 이상 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50점 1)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5%) 2)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최근 1년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기업	100점
	5	벤처투자기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또는 민간(재단, 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으로부터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100점
	6	법령에 의해 등록, 지정된 창업지원플랫폼 ⁶⁾ 또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의 창업지원플랫폼으로부터 현재 입주 또는 (전문)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업	30점
	7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의 사회적경제·벤처·창업지원 사업 등에 선정되어 30백만원 상당 이상의 지원을 받은 기업	30점
연구개발 역량	8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기술평가를 받거나 심사후등록한 실용신안권, SW프로그램저작권, 품종보호권)을 보유(실시권 포함)하고 있는 기업 * 단, 창업 1년 미만인 기업은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도 인정	40점
	9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⁷⁾ 가 5% 이상인 기업(최근 2년 평균) * 단, 창업후 1년 미만인 기업은 신청일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 및 기술 개발 금액 ⁸⁾ 으로 확인	50점
	10	중앙정부의 R&D기술개발사업에서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증(한국콘텐츠진흥원 관리)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업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30점
대표자 기술역량	11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한 또는 글로벌 창업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팀)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30점
	12	자연계 대학교수, 자연계 박사, 기술사 또는 대학 및 상장법인 부설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가 창업한 기업	10점
점 수 합 계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장성 인정)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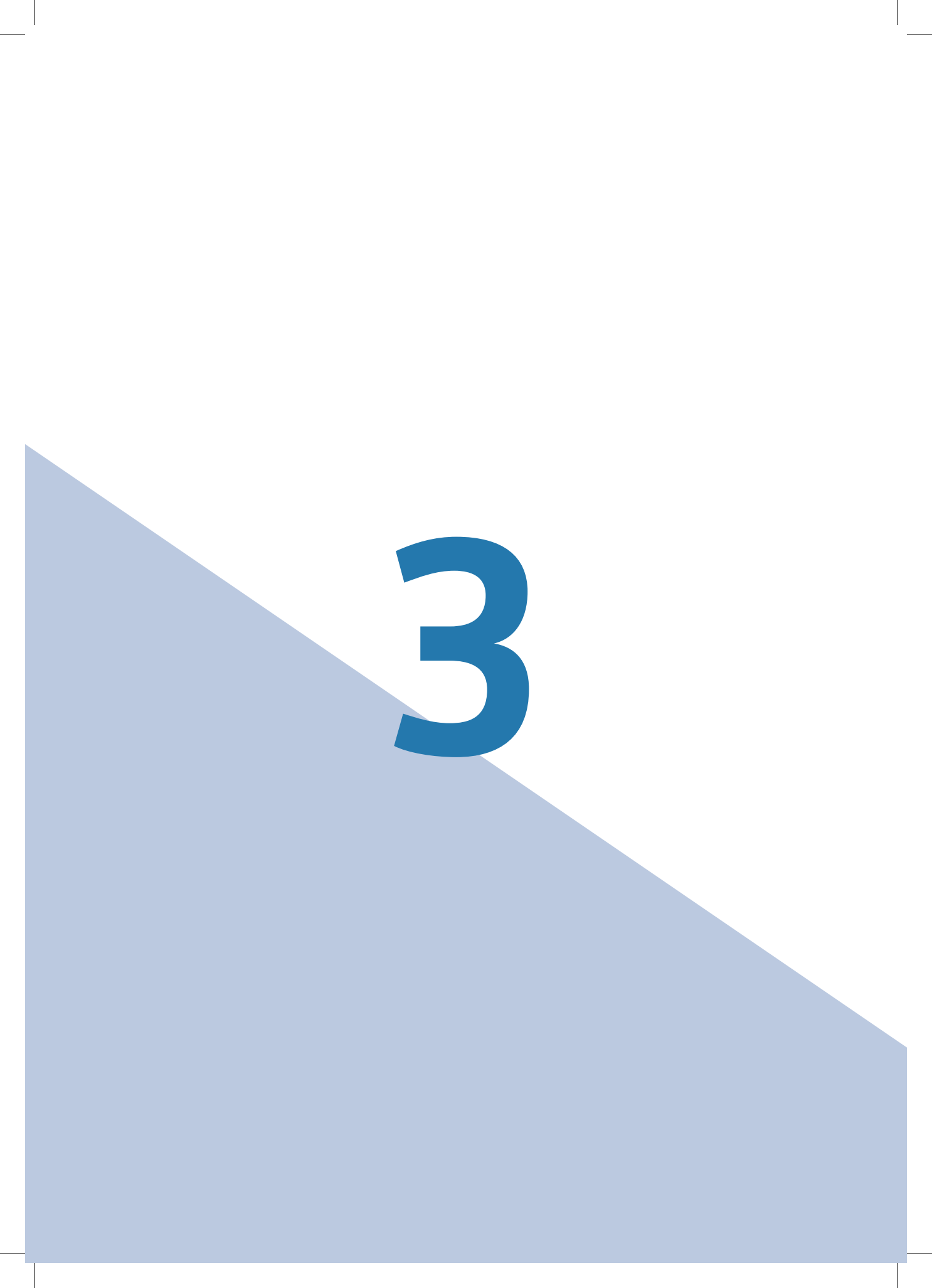
4) 산업통상자원부(舊 지식경제부)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첨단기술기업,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인증(IR52장영실상, NET, NEP)을 받은 기업

5) “혁신성장공동기준”이란 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미래 혁신성장 분야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정의한 것임

6) 창업기획사(엑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

7) 연구개발비 = 재무상태표상 개발비 증가액(당기개발비-전기개발비) + 손익계산서상 경산연구개발비 및 개발비 상각액 + 제조원가 명세서상 경산연구개발비

8)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에 관련한 인력의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소모성 기자재비, 시약/재료비, 기술도입비, 기술정보비, 외부지원 연구비, 기타 관련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 금액

A large, bold, blue number '3' is centered on a light blue background. The background is a solid light blue color. The number '3' is a dark blue color and is positioned in the center of the frame.

3

부록

사회적경제 정책포커스 발간 목록

2019년

사회적경제 정책포커스 1호

| 도시재생 및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통해 본 지역의 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성 |

●▶ 들어가며

태평동에서

- 서종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실장)

●▶ 1. 기고문

도시재생은 사회적경제를 담는 플랫폼

- 이주원 (세종특별자치시 정책특별보좌관)

도시재생 정책의 궤적, 그리고 현장에서의 도시재생사업

- 박중신 (㈜마을제작소&건축사사무소 대표)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사회적자본 확충이 절실하다

- 임경수 (협동조합 이장 대표)

농촌지역의 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성

- 한석주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 대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

- 오단이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공동체

- 송직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

●▶ 2. 좌담회

도시재생뉴딜과 지역의 사회적경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실

- 사회 : 서종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패널 : 조인창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

이상준 (LH 도시재생지원기구)

김재경 (커뮤니티와경제)

●▶ 3. 정책정보

도시재생 정책, 커뮤니티케어 정책, 지역자산화

- 서종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실장)

사회적경제
정책포커스

2020년

사회적경제 정책포커스 2호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경제 |

●▶ 들어가며

태평동에서

- 서종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실장)

●▶ 1. 코로나19와 사회적경제

(현장브리핑) 코로나19가 사회적경제에 미친 영향

- 사회적경제지원실 정책연구팀

(좌담회) 포스트 코로나 시기, 대구 사회적경제 현장의 대응과 고민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실

- 사회 : 서종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실장)

- 패널 : 김강수 ((주)꿈꾸는씨어터 대표)

조기현 (다울건설협동조합 이사장)

허영철 ((주)공감씨즈 대표)

전 인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윤정희 (대구시청 사회적경제과 팀장)

박진영 (대구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본부장)

●▶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와 사회적경제

(기고)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와 경제 위기,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역할

- 정태인 (독립연구자, 경제학)

(기고) With 코로나, 마을방과후의 변화가 시작된다

- 이미경 (은평구마을방과후지원센터 센터장)

(기고) 지역 일자리로서 자활기업의 의미와 가능성: 서울 도봉구 사례를 중심으로

- 이철진 (도봉지역자활센터 실장)

(기고) 지역 공동체에서 실천하는 관계의 경제: 우렁이밥상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 김푸르매 (S. Economy 발행인)

(기고)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금융의 역할

- 이현민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금융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함께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이사장)

●▶ 3. 국내 코로나19 대응 노력

(국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정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실

(해외) '코로나 쇼크'에 맞서는 사회적경제의 연합전선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실

사회적경제
정책포커스

사회적경제 정책포커스 3호

|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경제 |

● 들어가며

태평동에서

- 서종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실장)

● 1. 한국판 뉴딜에 거는 사회적경제의 기대와 과제

(기고)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그린 뉴딜과 사회적경제

-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기고)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그린 뉴딜하기 :

원주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 제현수(원주시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기고) 디지털경제의 사회적 전환과 사회적경제의 디지털 전환

-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장)

(기고) 디지털 뉴딜의 핵심 과제, 데이터 댐 :

무엇을 담아내는 다목적 댐이 될 것인가

- 박태원 (디앤아이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기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 박현정 (전주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좌담회) 그린 뉴딜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과 과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실

- 사회 : 서종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실장)

- 패널 :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이창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김종식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정승일 (새로운사회연구원 이사)

● 2. 국내외 정책 정보

(국내) 한국판 뉴딜 관련 정부 정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실

(해외) 해외 그린딜 정책 동향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실



2021년

사회적경제 정책포커스 4호

| 변화하는 노동과 사회적경제 |

● 들어가며

태평동에서

- 서종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실장)

● 1. 변화하는 노동과 사회적경제

(기고) 변화하는 노동과 사회적경제

-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기고) 사회적경제의 과감한 도전, 불안정 노동과 플랫폼 협동조합 : ‘우렁각시 가사관리 플랫폼’의 경험을 중심으로

-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기고) 청년 예술인 프리랜서의 울타리를 만드는 대구문화예술프리랜서협동조합

- 권준열 (대구문화예술프리랜서협동조합 이사)

(좌담회) 불안정 노동 확산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대응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실

- 사회 : 서종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실장)

- 패널 : 문미성(주식회사 잘노는 대표)

서인형(한국스마트협동조합 이사장)

황선자(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박노근(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기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자협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 정숙희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기고) 노동자들이 함께 만드는 사회안전망 ‘노동공제’

-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

(기고) 미국의 플랫폼 경제 성장과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응

- 지민선 (덴버대학교 박사 / 뉴스쿨 쿼디지털경제연구소 펠로우)

● 2. 정책 정보

(국내) 불안정 노동 확산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실

사회적경제
정책포커스

사회적경제 정책포커스 5호

| 웰컴, 소셜벤처 |

●▶ 들어가며

태평동에서

- 서종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책연구본부장)

●▶ 1. 웰컴, 소셜벤처

(기고) 소셜벤처의 등장과 의미

-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기고) 대통령 경제사절단 최초의 소셜벤처, 그 후 어떻게 됐을까?

- 김정태 (사회혁신 컨설팅·임팩트투자 MYSC 대표)

(기고) 소셜벤처, 현재와 미래

- 김나영 (크레비스파트너스 이사)

(좌담회) 궤도에 오른 소셜벤처, 법제화 이후 과제는?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실

- 사회 : 서종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책연구본부장)

- 패널 : 임성훈 (디쓰리주빌리파트너스 파트너)

전일주 (임팩트얼라이언스 팀장)

김슬기 ((주)잇마플 대표)

천자영 ((주)옴니아트 이사)

박장선 (성동구청 구정연구기획단 정책기획위원)

(기고)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성동구 정책 현황 및 성과, 향후 과제

- 박장선 (성동구청 구정연구기획단 정책기획위원)

●▶ 2. 정책 정보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실



이메일 무료구독을

희망하시는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독신청 |

☎ 031·697·7784 ✉ policy@ikosea.or.kr

Vol.5 ('22)

사회적경제 정책포커스

발 행 인 정현곤

발 행 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편집위원장 서종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편 집 위 원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모성훈 (이로운넷)

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은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강유신 (기획재정부)

제 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안수진, 정석호, 김진영, 이재희, 김지수, 이광진, 동화영

주 소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6~8층)

전화/팩스 031. 697. 7784 / 031. 697. 7889

홈 페이지 www.socialenterprise.or.kr

※ 사회적경제 정책포커스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Vol.5

사회적경제
정책포커스

Vol.5

사회적경제
정책포커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9 772713 576004

ISSN 2713-5764